



NABO 경제동향 & 이슈

NABO Economy Trends & Issues

CONTENTS

국내경제 동향

금융시장 동향

해외경제 동향

경제이슈 분석 | 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



경제동향 & 이슈

총괄	정지은	경제분석국장
기획	박미정	경제분석총괄과장
	최영일	거시경제분석과장
조정	권일	산업자원분석과장
	허가형	인구전략분석과장
	황소정	경제분석관
작성	최영일	거시경제분석과장
	황종률	경제분석관
	김원혁	경제분석관
	설경원	경제분석관
	황소정	경제분석관
지원	장수지	행정실무관
	임현민	자료분석연구원

- 「NABO 경제동향 & 이슈」에 관한 문의 사항은
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과(☎ 02-6788-3775)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「NABO 경제동향 & 이슈」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(www.nabo.go.kr)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-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.

NABO

Economy Trends & Issues

경제동향 & 이슈

2026년 7월호
통권 제142호

Contents

I 국내경제 동향

1. 경제상황 평가.....	01
2. 소비	04
3. 투자	06
4. 중앙정부 재정지출	10
5. 대외거래	14
6. 소비자물가	17

II 금융시장 동향

1. 금리 및 주가	19
2. 가계대출 및 부동산	22
3. 기업 자금조달	24
4. 환율 및 외환시장	26

III 해외경제 동향

IV 경제이슈 분석

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	3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경제동향 종합

2026년 5월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의 회복세와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으나,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등 중동전장의 여파가 지속

■ 5월 「생산」은 서비스업이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제조업은 감소

- 전산업 생산(전월대비, %): ('26.3월)0.4 → (4월)-0.4 → (5월)-0.3
- 제조업 생산(전월대비, %): ('26.3월)0.4 → (4월)-0.8 → (5월)-3.1
- 서비스업 생산(전월대비, %): ('26.3월)1.5 → (4월)-0.9 → (5월)1.3

■ 5월 「경기종합지수」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대비 하락

-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(전월대비, p): ('26.3월)0.4 → (4월)0.2 → (5월)-0.3
-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(전월대비, p): ('26.3월)0.7 → (4월)0.6 → (5월)0.7

■ 5월 「소매판매액」은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 판매 증가로 전월대비 증가

- 소매판매액(전월대비, %): ('26.3월)1.9 → (4월)-3.5 → (5월)0.1

■ 5월 「건설기성액(불변)」은 건축과 토목 기성액 모두 증가

- 건설기성액(불변, 전월대비, %): ('26.3월)-5.9 → (4월)-1.4 → (5월)3.8

■ 5월 「설비투자」는 전월대비 소폭 감소, 전년동월대비 기계류를 중심으로 증가

- 설비투자(전월대비, %): ('26.3월)1.5 → (4월)-3.2 → (5월)-0.1
- 설비투자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9.2 → (4월)7.9 → (5월)9.7

■ 4월 「중앙정부 총지출」은 누계기준 267.4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4.0조원(9.9%) 증가

- 총지출 증감(누계, 전년대비, 조원): ('26.2월)12.9 → (3월)5.8 → (4월)24.0
- 경상지출 증감(누계, 전년대비, 조원): ('26.2월)14.5 → (3월)8.6 → (4월)24.9
- 자본지출 증감(누계, 전년대비, 조원): ('26.2월)-1.6 → (3월)-2.9 → (4월)-0.9

■ 6월 「무역수지」는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 호조로 361.5억달러 흑자

- 수출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47.8 → (5월)53.4 → (6월)70.9
- 수입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16.6 → (5월)20.7 → (6월)30.1
- 무역수지(억달러): ('26.4월)237.4 → (5월)270.4 → (6월)361.5

■ 6월 「소비자물가」는 상품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폭 확대

- 소비자물가상승률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2.6 → (5월)3.1 → (6월)3.2

경제동향 종합

■ 6월 「국고채금리」는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

- 국고채금리(3년물, 월평균, %): ('26.4월)3.41 → (5월)3.68 → (6월)3.79
- 회사채금리(3년물 AA-, 월평균, %): ('26.4월)4.07 → (5월)4.32 → (6월)4.43
- 위험 스프레드(회사채3년물-국고채3년물, %p): ('26.4월)0.66 → (5월)0.63 → (6월)0.64

■ 6월 「코스피 지수」는 일별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월말 대비 보합 흐름

- 코스피 지수(월말, 1980.1.4.=100): ('26.4월)6,598.9 → (5월)8,476.2 → (6월)8,476.5
- 코스피 일평균 거래량(10만주): ('26.4월)9,471.8 → (5월)6,987.9 → (6월)4,900.2

■ 4월 「가계대출」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속 증가

- 가계대출(잔액, 조원): ('26.2월)1,331.6 → (3월)1,334.6 → (4월)1,338.6
- 주택담보대출(잔액, 조원): ('26.2월)912.6 → (3월)916.0 → (4월)921.1

■ 5월 「주택매매 가격」 전월대비 증가, 「주택매매 거래량」은 감소

- 주택매매 가격지수(전국, 전월대비, %): ('26.3월)0.15 → (4월)0.16 → (5월)0.21
- 주택매매 거래량(건): ('26.3월)71,975 → (4월)69,755 → (5월)62,703

■ 4월 「기업대출」은 은행권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68.4조원 증가

- 기업대출증감액(전년대비, 조원): ('26.2월)58.1 → (3월)68.8 → (4월)68.4
- 기업대출잔액(조원): ('26.2월)1,921.3 → (3월)1,932.2 → (4월)1,946.0

■ 5월 「주식 및 채권발행」은 단기사채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

- 주식·회사채(조원): ('26.3월)20.0 → (4월)22.6 → (5월)20.1
- CP·단기사채(조원): ('26.3월)200.5 → (4월)226.6 → (5월)259.4

■ 6월 「원/달러 환율」은 전월대비 상승한 가운데 변동성은 소폭 축소

- 원/달러 환율(월말기준): ('26.4월)1,476.1 → (5월)1,505.8 → (6월)1,541.5
- 원/달러 환율 변동성(%): ('26.4월)13.0 → (5월)10.2 → (6월)9.9

■ 6월 「외환보유액」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

- 외환보유액(기말기준, 억달러): ('26.4월)4,278.8 → (5월)4,269.9 → (6월)4,273.6
- 외환보유액 증감액(전월대비, 억달러): ('26.4월)42.2 → (5월)-8.8 → (6월)3.7

주요 경제 지표

(전기대비, %, 원)

	2024	2025					2026			
	연간	연간	1Q	2Q	3Q	4Q	1Q	4월	5월	6월
전산업생산	1.6	1.1	0.2 (0.3)	0.3 (1.0)	0.9 (3.6)	-0.6 (-0.2)	1.7 (2.8)	-0.4 (2.4)	-0.3 (2.3)	-
제조업생산	4.3	3.0	0.8 (2.8)	0.9 (3.5)	1.4 (8.1)	-3.3 (-1.9)	3.0 (2.9)	-0.8 (1.5)	-3.1 (-0.9)	-
서비스업생산	1.3	2.0	0.3 (0.9)	0.4 (1.6)	0.7 (3.2)	1.2 (2.3)	1.2 (4.0)	-0.9 (3.7)	1.3 (4.9)	-
소매판매액	-1.9	0.3	0.6 (-0.8)	-0.6 (-0.1)	1.2 (1.6)	0.6 (0.9)	2.4 (3.2)	-3.5 (1.6)	0.1 (1.7)	-
건설기성액	-4.6	-16.4	-7.2 (-21.1)	-2.6 (-17.3)	-0.8 (-11.9)	-4.1 (-15.1)	0.5 (-6.1)	-1.4 (-5.3)	3.8 (-1.9)	-
설비투자지수	3.0	1.2	-2.2 (5.4)	0.3 (5.5)	0.6 (1.2)	-3.8 (-6.2)	13.0 (9.8)	-3.7 (7.9)	-0.1 (9.7)	-
수출(통관)	8.1	3.8	-2.3	2.1	6.5	8.4	37.8	47.9	53.4	70.9
수입(통관)	-1.7	0.0	-1.3	-1.7	1.6	1.4	10.9	16.6	20.7	30.1
경상수지(억달러)	1,000	1,231	195	284	360	392	744	283	386	-
소비자물가	2.3	2.1	2.1	2.1	2.0	2.4	2.1	2.6	3.1	3.2
취업자수 증감 (천명)	160	193	155	207	217	195	183	74	-40	63
실업률	2.8	2.8	3.4	2.8	2.2	2.9	3.5	2.9	2.9	2.8
원/달러환율	1,364	1,422	1,467	1,356	1,402	1,435	1,513	1,476	1,506	1,542
국고채금리(3년)	3.11	2.57	2.59	2.39	2.45	2.84	3.32	3.41	3.68	3.79

주: 1. ()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

2. 수출 및 수입 그리고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

3. 원/달러 환율의 연간은 연평균, 분기(월)는 분기(월)말 매매기준율 기준

4. 취업자수 증감은 전년동기대비

5. 국고채금리는 기간 평균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한국은행, 산업통상부, 재정경제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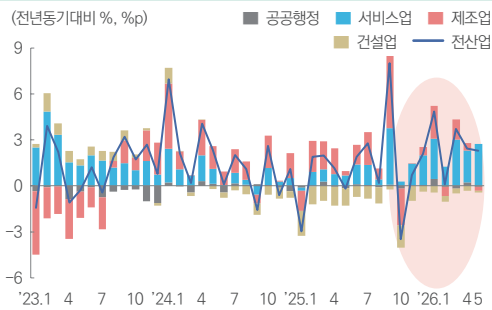
CHAPTER

01 경제상황 평가

■ '26.5월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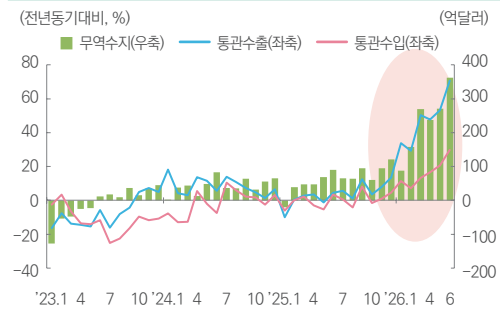
-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건설업도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제조업은 주춤
 - 전산업 생산(전월대비, %): ('26.3월)0.4 → (4월)-0.4 → (5월)-0.3
 - 수출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50.4 → (4월)47.9 → (5월)53.4 → (6월)70.9

| 그림 1 | 전산업 생산 증가율



주: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제시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기여도를 산출
 자료: 국가데이터처, 국회예산정책처

| 그림 2 | 수출입(통관)과 무역수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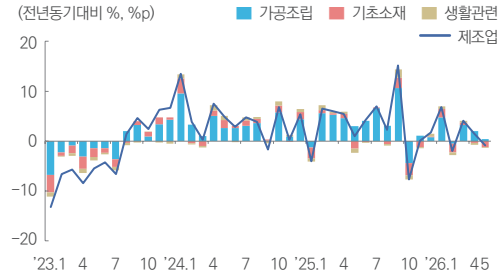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국가데이터처

■ 「생산」은 '26.5월 서비스업이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제조업은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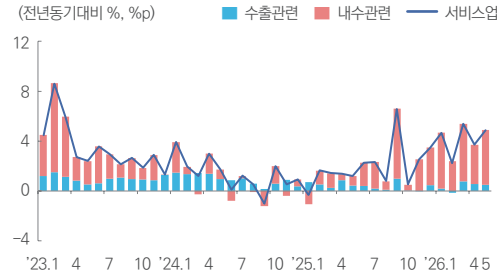
- 전월대비로도 제조업이 두 달 연속 감소하며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
 - 제조업 생산(전월대비, %): ('26.3월)0.3 → (4월)-0.8 → (5월)-3.1
 - 서비스업 생산(전월대비, %): ('26.3월)1.5 → (4월)-0.9 → (5월)1.3

| 그림 3 | 제조업 생산 증가율 추이



주: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제시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기여도를 산출
 자료: 국가데이터처, 국회예산정책처

| 그림 4 |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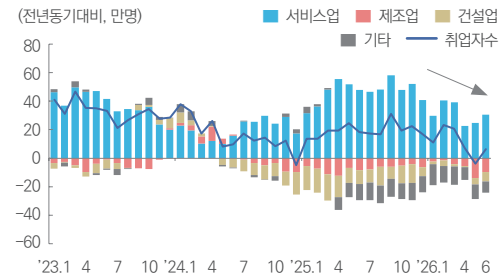


주: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제시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기여도를 산출
 자료: 국가데이터처, 국회예산정책처

■ 「취업자 수」는 '26.6월에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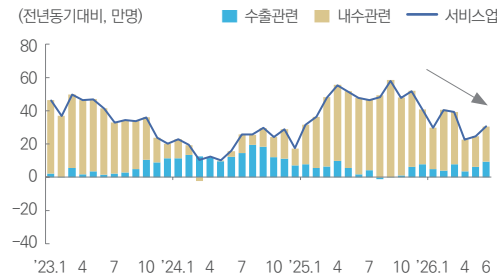
-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내수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제조업과 건설업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음
 - 전산업(전년동월대비 증감, 만명): ('26.4월)7.4 → (5월)-4.0 → (6월)6.3
 - 제조업(전년동월대비 증감, 만명): ('26.4월)-5.4 → (5월)-14.0 → (6월)-9.7
 - 건설업(전년동월대비 증감, 만명): ('26.4월)-0.8 → (5월)-4.3 → (6월)-6.7
 - 서비스업(전년동월대비 증감, 만명): ('26.4월)22.5 → (5월)24.6 → (6월)30.5

| 그림 5 | 취업자 수 증감



자료: 국가데이터처

| 그림 6 |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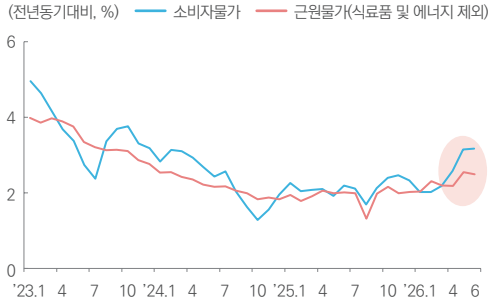


주: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·창고·통신업을 수출관련 서비스업으로, 그 외 서비스업을 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
 자료: 국가데이터처

■ 「소비자물가」는 '26.6월 3.2% 오르며 2%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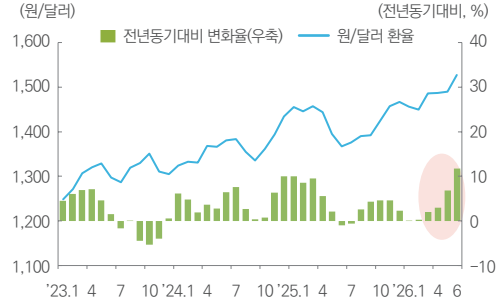
- 근원물가(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)도 2.5% 상승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상회
- 원/달러 환율은 3월 이후 중동전쟁,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 등의 영향으로 상승
 - 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2.6 → (5월)3.1 → (6월)3.2
 - 근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2.2 → (5월)2.5 → (6월)2.5
 - 원/달러환율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3.0 → (5월)6.9 → (6월)11.7

| 그림 7 |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



자료: 국가데이터처

| 그림 8 | 원/달러 환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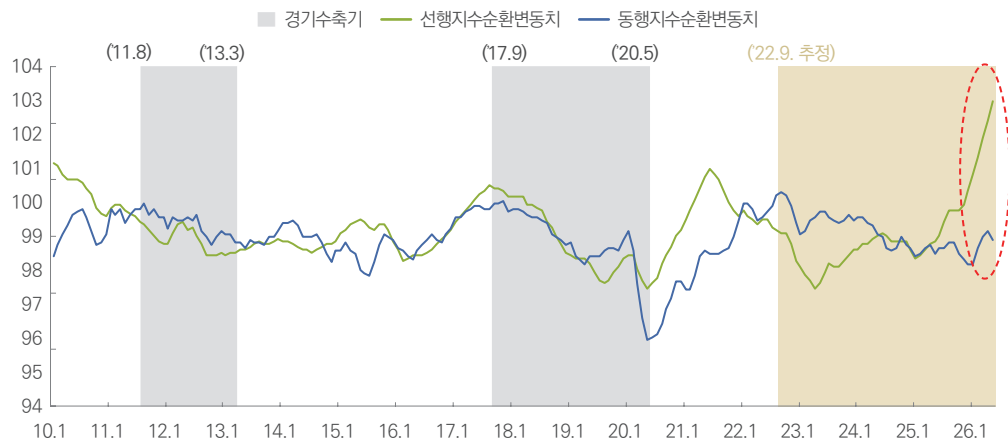
주: 점선은 전년도 최고 수준

자료: 한국은행

■ 5월 「경기종합지수」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대비 감소 전환

-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(99.9)는 서비스업생산지수, 수입액에서 증가하였으나, 광공업생산지수, 건설기성액, 내수출하지수 등에서 감소하며 전월대비 0.3%p 하락
 -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(전월대비, p): ('26.3월)0.4 → (4월)0.2 → (5월)-0.3
-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(104.8)는 코스피, 건설수주액, 수출입물가비율 등에서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 지속
 -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(전월대비, p): ('26.3월)0.7 → (4월)0.6 → (5월)0.7

| 그림 9 |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



주: 1) 순환변동치는 종합지수에서 비경기적 요인(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)을 제거한 지표

2)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: 광공업생산, 서비스업생산, 건설기성액, 소매판매액, 내수출하, 수입액, 비농림어업취업자수

3)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: 재고순환지표, 경제심리지수, 기계류내수출하, 건설수주액, 수출입물가비율, 코스피, 장단기금리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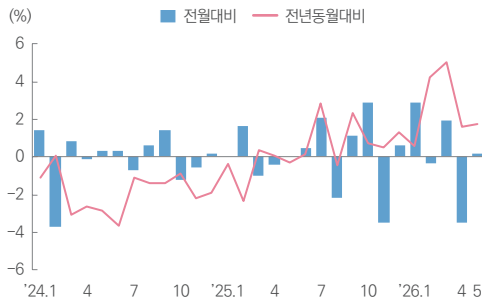
4) 2022년 9월은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경기정점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산업활동동향」

■ 5월 「소매판매액」은 전월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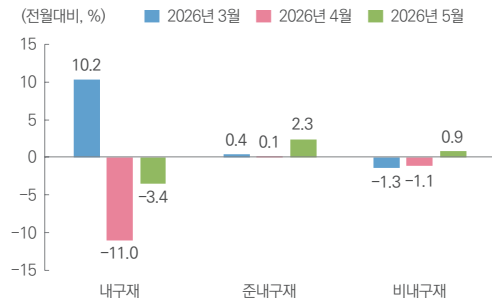
- 소매판매액은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의 판매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
 - 소매판매액(전월대비, %): ('26.3월)1.9 → (4월)-3.5 → (5월)0.1
 - 승용차 제외 소매판매액(전월대비, %): ('26.3월)1.7 → (4월)-3.1 → (5월)1.4

| 그림 10 | 소매판매액 증가율 추이

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서비스업동향조사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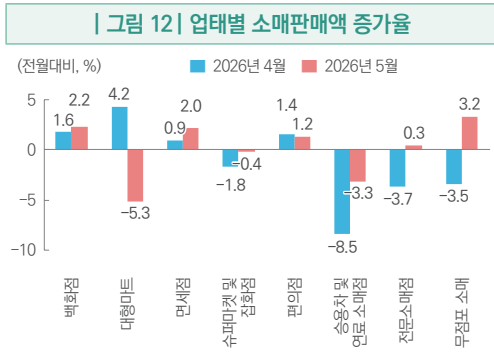
| 그림 11 | 재별 소매판매액 증가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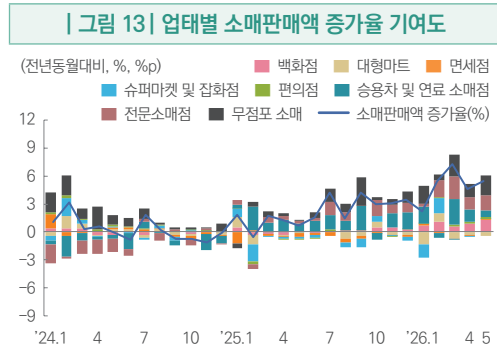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서비스업동향조사」

- 내구재는 승용차 판매 감소로 전월대비 3.4% 감소
 - 내구재(전월대비, %): ('26.3월)10.2 → (4월)-11.0 → (5월)-3.4
 - 승용차(전월대비, %): ('26.3월)2.6 → (4월)-6.5 → (5월)-10.9
 - 통신기기 및 컴퓨터(전월대비, %): ('26.3월)40.0 → (4월)-29.1 → (5월)9.1
 - 가구(전월대비, %): ('26.3월)1.0 → (4월)-4.5 → (5월)5.4
- 준내구재는 의복 등의 판매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2.3% 증가
 - 준내구재(전월대비, %): ('26.3월)0.4 → (4월)0.1 → (5월)2.3
 - 의복(전월대비, %): ('26.3월)-1.2 → (4월)0.8 → (5월)2.7
 - 신발 및 가방(전월대비, %): ('26.3월)4.3 → (4월)-0.3 → (5월)1.9
- 비내구재는 음식료품, 화장품, 차량연료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.9% 증가
 - 비내구재(전월대비, %): ('26.3월)-1.3 → (4월)-1.1 → (5월)0.9
 - 음식료품(전월대비, %): ('26.3월)-4.8 → (4월)1.6 → (5월)0.1
 - 차량연료(전월대비, %): ('26.3월)0.7 → (4월)-8.3 → (5월)4.6
 - 화장품(전월대비, %): ('26.3월)4.5 → (4월)-1.5 → (5월)6.8

- 소매업태별로는 백화점(2.2%), 무점포 소매(3.2%), 면세점(2.0%) 등에서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나 대형마트(-5.3%),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(-3.3%) 등에서 전월대비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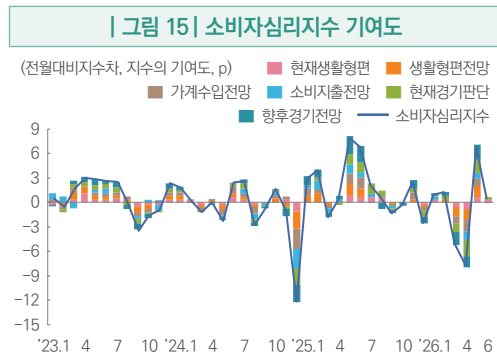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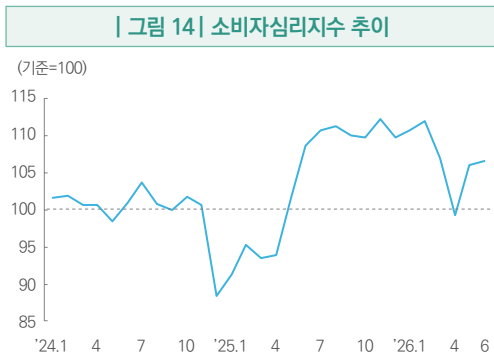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서비스업동향조사」



■ 「소비자심리지수」는 6월 중 전월대비 0.5p 상승한 106.6을 기록

- 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상황에 대한; 소비자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
 - 현재생활형편, 생활형편전망, 가계수입전망, 소비지출전망, 현재경기판단, 향후경기전망의 6개 세부지표로 구성
- 현재생활형편(94) 및 현재경기판단(86)은 전월대비 각각 1p, 3p 상승
 - 소비자심리지수: ('26.4월)99.2 → (5월)106.1 → (6월)106.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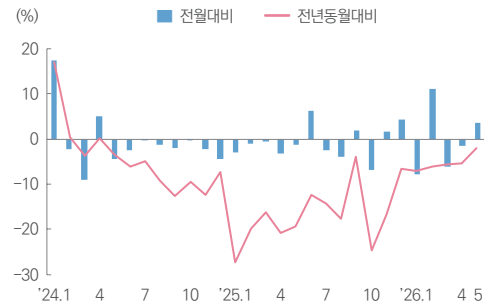


가. 건설투자

■ 「건설기성액(불변)」은 5월 중 건축과 토목 기성액 모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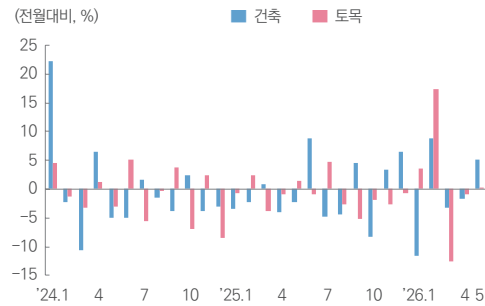
- 건설기성액(불변)은 전월대비 3.8% 증가
 - 건설기성액(전월대비, %): ('26.3월)-5.9 → (4월)-1.4 → (5월)3.8
 - 건축기성액(전월대비, %): ('26.3월)-3.2 → (4월)-1.6 → (5월)5.1
 - 토목기성액(전월대비, %): ('26.3월)-12.5 → (4월)-0.9 → (5월)0.2
-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의 감소폭 축소
 - 건설기성액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-5.6 → (4월)-5.3 → (5월)-1.9

| 그림 16 | 건설기성(불변) 추이

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건설경기동향조사」

| 그림 17 | 공종별 건설기성액(불변) 증감률 추이

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건설경기동향조사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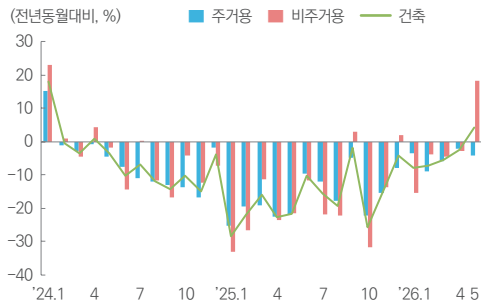
■ 「건설기성액(경상)」^[1]은 5월 중 건축과 토목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증가

- 건설기성액(경상)은 전년동월대비 3.6% 증가
 - 건설(경상, 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-3.0 → (4월)-0.7 → (5월)3.6
- 건축부문은 비주거용에서 큰 폭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.3% 증가
 - 건축(경상, 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-5.3 → (4월)-2.3 → (5월)4.3
 - 주거용(경상, 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-5.8 → (4월)-2.1 → (5월)-3.9
 - 비주거용(경상, 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-4.4 → (4월)-2.6 → (5월)18.2

[1] 세부 공정에 대한 건설기성액 동향을 경상 금액을 기준으로 파악(불변기준 건설기성액 세부내역은 공표되지 않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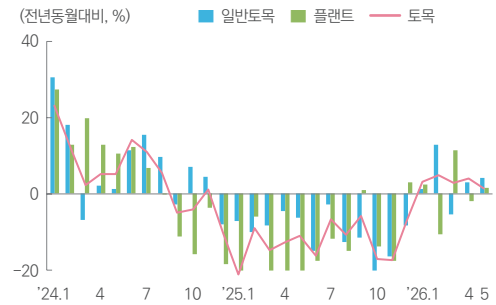
- 토목부문은 일반토목, 플랜트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.4% 증가
 - 토목(경상, 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2.9 → (4월)4.0 → (5월)1.4
 - 일반토목(경상, 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-5.5 → (4월)2.9 → (5월)4.2
 - 전기기계(경상, 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16.7 → (4월)72.9 → (5월)-8.5
 - 플랜트(경상, 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11.3 → (4월)-2.0 → (5월)1.7
- 발주자별로는 민간과 공공 모두에서 증가
 - 공공(경상, 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-4.3 → (4월)-4.7 → (5월)3.0
 - 민간(경상, 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2.9 → (4월)11.8 → (5월)6.1

| 그림 18 | 공종별 건축기성액(경상) 추이

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건설경기동향조사」

| 그림 19 | 공종별 토목기성액(경상)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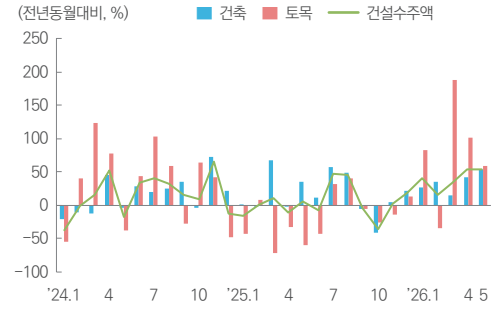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건설경기동향조사」

■ 「건설수주액(경상)」은 5월 중 전년동월대비 55.3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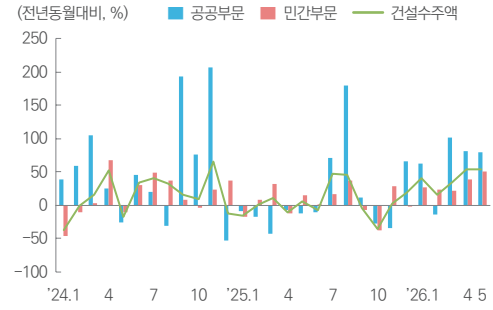
- 공종별로는 건축과 토목 수주 모두 큰 폭 증가
 - 건축 수주는 공장 및 창고(962.2%)가 큰 폭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54.5% 증가
 - 토목 수주는 철도 및 궤도(2,580.7%) 부문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60.4% 증가
 - 건설수주액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34.4 → (4월)55.7 → (5월)55.3
- 발주자별로는 민간 및 공공 부문 수주 모두 큰 폭 증가
 - 민간부문 수주는 전년동월대비 50.7% 증가하였고, 공공부문 수주는 79.3% 증가

| 그림 20 | 공종별 건설수주액(경상) 추이

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건설경기동향조사」

| 그림 21 | 발주자별 건설수주액(경상)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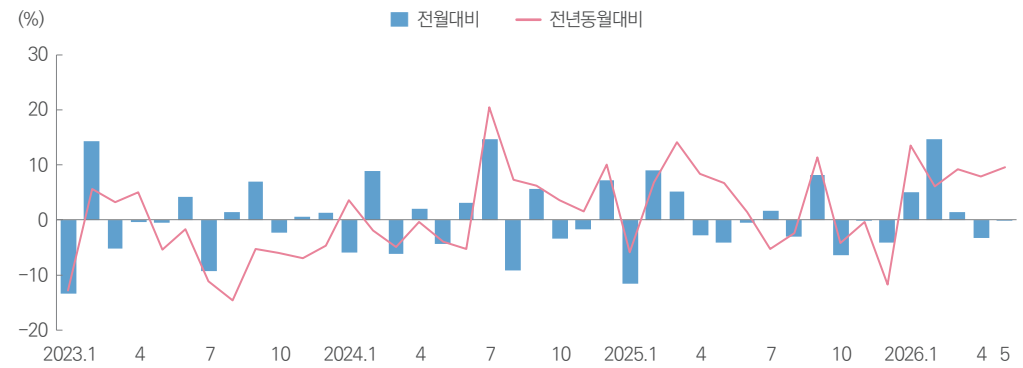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건설경기동향조사」

나. 설비투자

■ 5월 「설비투자」는 전월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전년동월대비는 기계류 중심으로 증가

- 설비투자는 기계류가 감소하며 전월대비 0.1% 감소
 - 설비투자(전월대비, %): ('26.3월)1.5 → (4월)-3.2 → (5월)-0.1
 - 기계류(전월대비, %): ('26.3월)-0.3 → (4월)0.7 → (5월)-0.2
 - 운송장비(전월대비, %): ('26.3월)5.2 → (4월)-10.9 → (5월)0.2
- 전년동월대비는 기계류가 두 자릿수 증가하며 전체 9.7% 증가
 - 설비투자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9.2 → (4월)7.9 → (5월)9.7
 - 기계류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3.5 → (4월)10.0 → (5월)12.5
 - 운송장비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24.2 → (4월)3.8 → (5월)4.2

| 그림 22 | 설비투자지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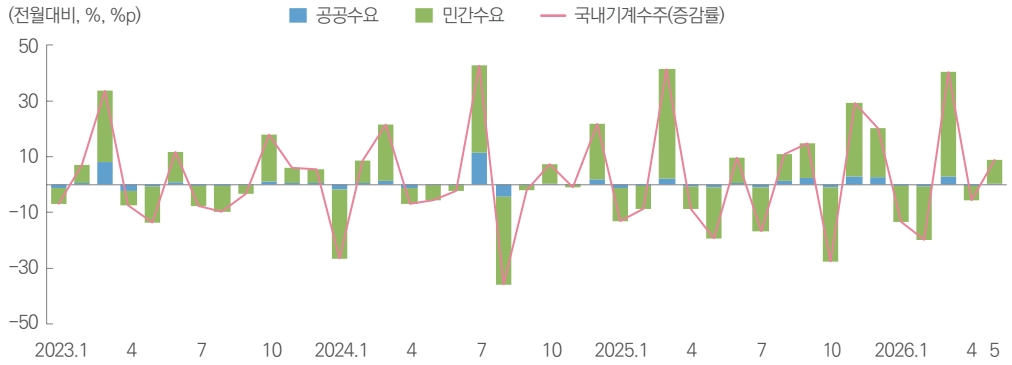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산업활동동향」

■ 5월 「국내기계수주」는 민간 부문이 늘며 전월대비 8.9% 증가

- 국내기계수주(전월대비, %): ('26.3월)40.4 → (4월)-5.7 → (5월)8.9
- 공공부문(전월대비, %): ('26.3월)159.1 → (4월)-15.3 → (5월)-33.3
- 민간부문(전월대비, %): ('26.3월)35.6 → (4월)-5.0 → (5월)11.8

| 그림 23 | 국내기계수주 전월대비 증감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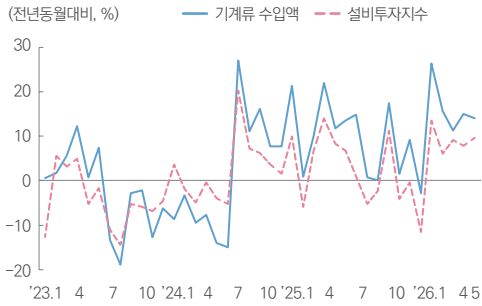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산업활동동향」

■ 5월 「기계설비류 내수출하(선박제외)」는 전월대비 감소, 「기계류 수입액」은 전년동월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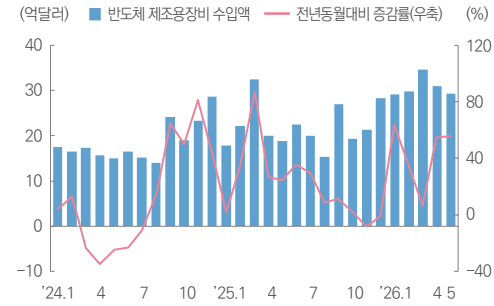
- 기계설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4.0% 감소
 - 기계류 내수출하(전월대비, %): ('26.3월)26.8 → (4월)-3.7 → (5월)-4.0
- 기계류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11.3% 증가
 - 기계류 수입액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11.3 → (4월)15.1 → (5월)14.1
 -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6.6 → (4월)55.0 → (5월)56.1

| 그림 24 | 기계류 수입액 추이

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산업활동동향」, 무역협회

| 그림 25 |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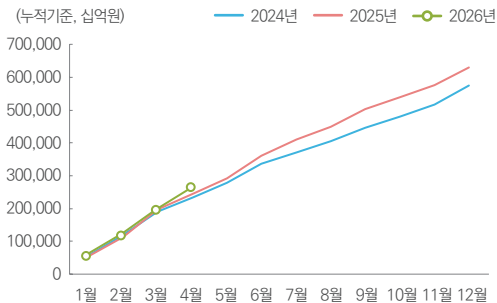
자료: 무역협회

04 중앙정부 재정지출

■ 통합재정 「중앙정부 총지출」^[2]은 4월까지 누계기준 전년대비 24.0조원(9.9%)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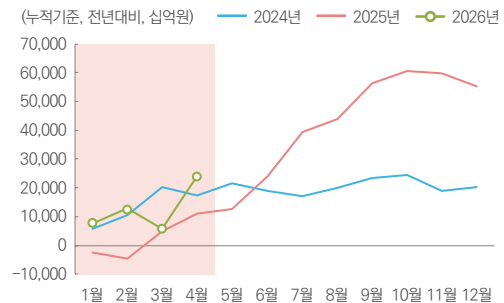
- 2026년 1~4월 중 중앙정부 통합재정 재정지출에서 순융자를 뺀 중앙정부 총지출(경상지출+자본지출) 규모는 267.4조원으로 전년대비 24.0조원(9.9%) 증가
 - 경상지출은 250.7조원으로 전년대비 24.9조원(11.0%) 증가하였으나, 자본지출은 16.7조원으로 전년대비 0.9조원(5.0%) 감소
 - 총지출 증감(누계, 전년대비, 조원): ('26.2월)12.9 → (3월)5.8 → (4월)24.0
 - 통합재정수지(누계, 조원)^[3]: ('26.2월)-7.1 → (3월)-22.8 → (4월)-13.2

| 그림 26 | 중앙정부 총지출 추이



자료: 재정경제부

| 그림 27 | 중앙정부 총지출 증감 추이



자료: 재정경제부

■ 경상지출은 가계 및 지방정부 경상이전 지출 등에서 증가하였고, 자본지출은 토지 및 무형자산매입, 고정자산 취득 모두 감소

- 1~4월 중 경상지출^[4]은 250.7조원으로 지방정부 경상이전(8.0조원), 비영리기구 경상이전(7.0조원) 등을 중심으로 늘며 전년대비 24.9조원(11.0%) 증가

[2] 정부의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는 총지출과 통합재정 상 재정지출이다. 총지출은 총계 기준으로 작성하며 일반지출(경상지출+자본지출)과 융자지출을 합한 규모이다. 통합재정 상 재정지출은 총지출(경상지출+자본지출)에 순융자(융자지출-융자회수)를 더한 재정지출 규모이다. 현재는 IMF의 1986 GFS(Government Finance Statistics)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, 재정 활동의 경제적 영향 및 재정 건전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. 지난 1979년부터 연간으로 작성하고 있으며, 1999년 이후부터 월별 실적을 공표하고 있다.

[3] 통합재정수지 = 총수입 - (총지출+순융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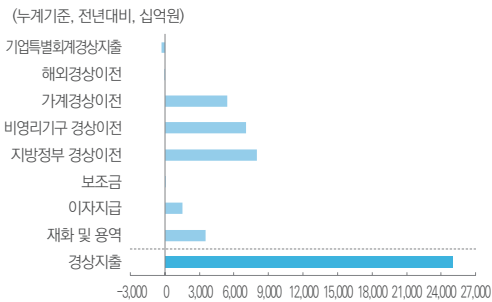
[4] 경상지출은 ①재화 및 용역, ②이자지급, ③보조금 및 경상이전, ④기업특별회계 경상지출 등으로 나눌 수 있다. 재화 및 용역은 급여 및 임금, 사회보장기여금, 기탁재화 및 용역구입 등에 대한 지출이다. 이자지급은 중앙정부, 지방정부, 해외 등의 차입금 이자 등에 대한 지출이다. 보조금 및 경상이전 지출은 보조금, 지방정부에 대한 경상이전, 비영리기구에 대한 경상이전, 가계에 대한 경상이전, 해외경상이전 등이다. 기업특별회계 경상지출은 비금융공기업의 경상지출이다.

- 경상지출 증감(누계, 전년대비, 조원): ('26.2월)14.5 → (3월)8.6 → (4월)24.9
- 가계 경상이전 증감(누계기준, 전년대비, 조원): ('26.2월)3.8 → (3월)4.9 → (4월)5.4
- 지방정부 경상이전 증감(누계기준, 전년대비, 조원): ('26.2월)6.8 → (3월)-1.4 → (4월)8.0
- 비영리기구 경상이전 증감(누계기준, 전년대비, 조원): ('26.2월)2.2 → (3월)1.3 → (4월)7.0

• 1~4월 중 자본지출^[5]은 16.7조원으로 고정자산취득, 토지 및 무형자산매입에서 모두 줄어 전년대비 0.9조원(5.0%)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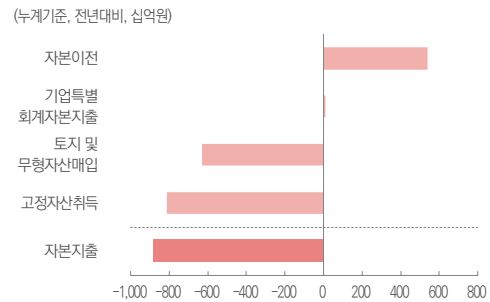
- 자본지출 증감(누계기준, 전년대비, 조원): ('26.2월)-1.6 → (3월)-2.9 → (4월)-0.9
- 고정자산취득 증감(누계기준, 전년대비, 조원): ('26.2월)-0.6 → (3월)-0.6 → (4월)-0.8
- 토지 및 무형자산매입 증감(누계기준, 전년대비, 조원): ('26.2월)-0.7 → (3월)-0.7 → (4월)-0.6
- 자본이전 증감(누계기준, 전년대비, 조원): ('26.2월)-0.3 → (3월)-1.5 → (4월)0.5

| 그림 28 | 경상지출 증감을 추이



자료: 재정경제부

| 그림 29 | 자본지출 증감을 추이



자료: 재정경제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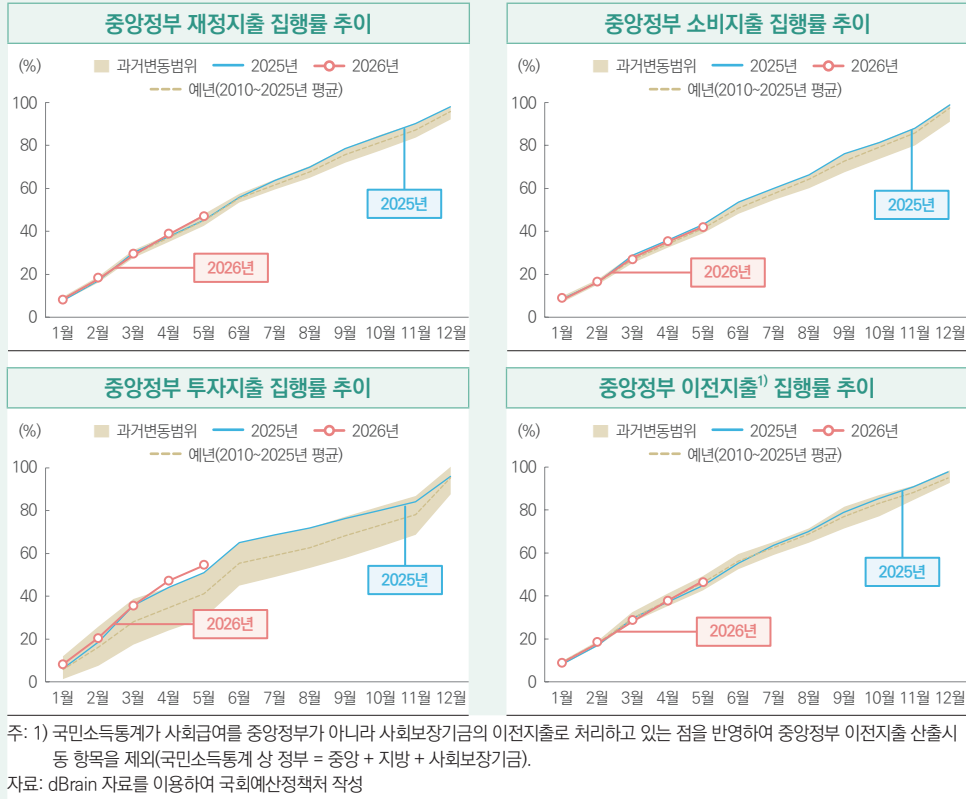
[5] 자본지출은 ①고정자산취득, ②재고자산매입, ③토지 및 무형자산매입, ④자본이전 등으로 나뉜다.

[BOX]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(dBrain)을 이용한 국민소득 기준 재정 집행을**■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(dBrain)에 수록된 월별 정부지출 원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소득통계 기준 중앙정부 재정지출 집행률을 시범 추정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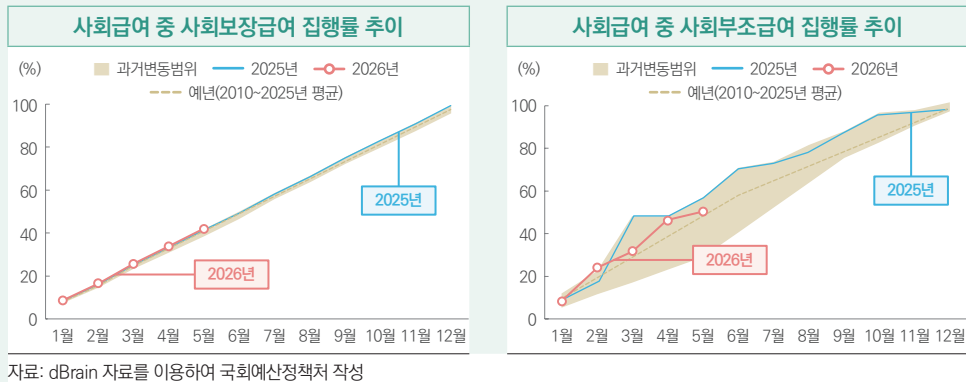
- 한국재정정보원(FIS)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예산시스템이 중앙정부 각 부처의 지출 세목별 세출집행실적을 월별로 시차 없이 집계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
- IMF의 '01 재정통계편람(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, GFS)을 원용하여 국민소득통계 상 중앙정부 재정지출과 그 주요 구성 항목인 소비지출, 투자지출, 이전 지출 등의 집행을 월별로 추정
 - dBrain에 수록된 당월까지의 항목별 지출액과 세출예산액(최종예산 기준, 연간)을 '01 재정통계편람(GFS) 체계에 맞추어 각각 재분류한 다음 예산액 대비 집행률을 산출 (집행률 = 지출액/예산액)
 - 정부도 '01 재정통계편람(GFS)을 일반정부 결산 재정수지 작성에 활용하고 있으며 작성 결과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 「한국통합재정수지」에 수록하여 공표
 - * 자세한 내용은 NABO 경제동향 & 이슈 제134호(2025.3.) “IV. 경제이슈 분석: 중앙정부 재정지출과 국민소득통계 간 연계 분석”을 참조(p.38~46)
- 이렇게 재분류한 '26년 세출예산액(최종예산 기준, 연간)을 기준으로 보면,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이전지출, 소비지출, 투자지출 순
 - 소비지출('26년 예산 중 12.2%): 피용자보수, 재화와 용역의 사용 등
 - 투자지출('26년 예산 중 10.4%): 총고정자본형성
 - 이전지출('26년 예산 중 55.2%, 사회급여 제외): 이자지급, 보조금, 출연금 등
 - 사회급여('26년 예산 중 22.0%, 사회보장기금의 지출): 사회보장급여, 사회부조급여
 - * 국민소득통계는 국민연금 등 사회급여를 중앙정부가 아닌 사회보장기금의 이전지출로 분류(국민 소득통계 상 일반정부 = 중앙정부 + 지방정부 + 사회보장기금)
- 이러한 방식으로 추정된 집행률은 중앙정부의 재정활동을 시차 없이 국민소득통계의 관점(정부소비 및 정부투자)에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
 - 현재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와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통계는 서로 다른 분류체계와 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어 구성항목과 금액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, 이는 국민소득의 관점(정부소비 및 정부투자)에서 재정동향을 파악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

■ 국회예산정책처가 자체 추정한 국민소득 기준 '26.5월 중앙정부 재정지출 집행률은 예년 5월의 평균 집행률(2010~2025년 평균)과 유사한 수준

- 다만 '26.5월 투자지출 집행률은 역대 최고였던 '25년 수준을 2개월 연속 상회



■ 사회급여 집행률(사회보장기금의 지출로 분류)도 특이 동향없이 예년 5월과 유사한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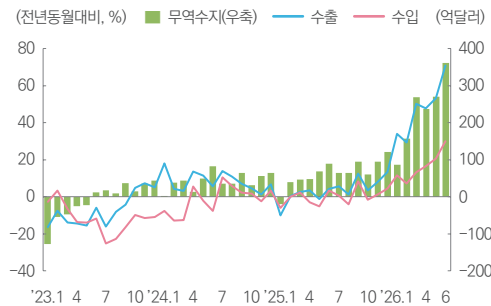


가. 수출입 및 무역수지

■ 6월 「무역수지」는 361.5억달러 흑자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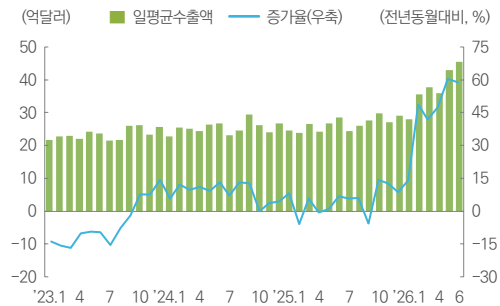
- 수출은 1,022.5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0.9% 증가
 - 수출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47.8 → (5월)53.4 → (6월)70.9
 - 일평균수출액(억달러): ('26.4월)35.8 → (5월)42.8 → (6월)45.4
- 수입은 661.0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0.1% 증가
 - 수입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16.6 → (5월)20.7 → (6월)30.1
 - 일평균수입액(억달러): ('26.4월)25.9 → (5월)29.7 → (6월)29.4
- 무역수지(통관 수출입차)는 361.5억달러로 흑자폭 지속 확대
 - 무역수지(억달러): ('26.4월)237.4 → (5월)270.4 → (6월)361.5

| 그림 30 |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



자료: 산업통상부, 「수출입 동향」

| 그림 31 | 일평균 수출액 추이



자료: 산업통상부, 「수출입 동향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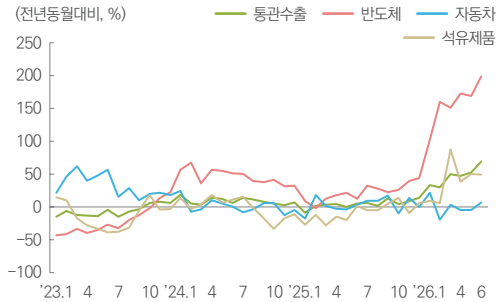
■ 6월 「수출」은 품목별로는 반도체, 컴퓨터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, 지역별로는 중국, 아세안, 미국 등을 중심으로 증가

- 반도체, 컴퓨터 등 IT 품목 수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석유제품 수출도 증가
 - 반도체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173.5 → (5월)169.4 → (6월)199.5
 - 자동차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-5.6 → (5월)-5.9 → (6월)5.8
 - 석유제품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38.6 → (5월)50.8 → (6월)49.8
 - 컴퓨터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515.5 → (5월)290.7 → (6월)308.8

• 중국, 아세안, 미국 등에 대한 수출이 크게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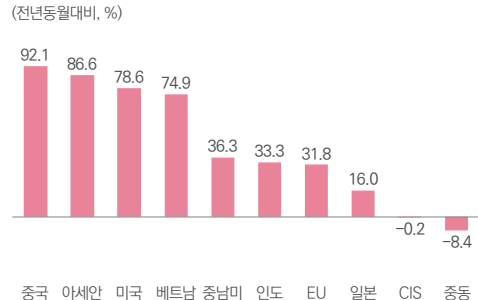
- 대중국 수출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62.8 → (5월)80.0 → (6월)92.1
- 대미국 수출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54.1 → (5월)59.4 → (6월)78.6
- 대일본 수출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29.2 → (5월)12.6 → (6월)16.0
- 대아세안 수출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63.2 → (5월)58.6 → (6월)86.0

| 그림 32 |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



자료: 산업통상부, 「수출입 동향」

| 그림 33 | 6월 중 지역별 수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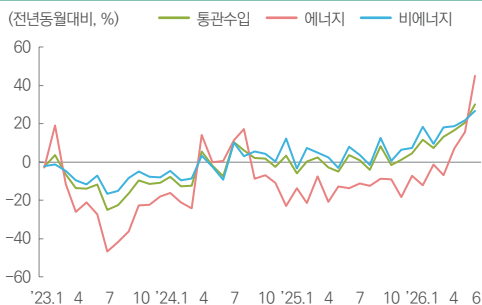


주: CIS는 독립국가연합을 의미함
자료: 산업통상부, 「수출입 동향」

■ 6월 「수입」은 에너지와 비에너지 부문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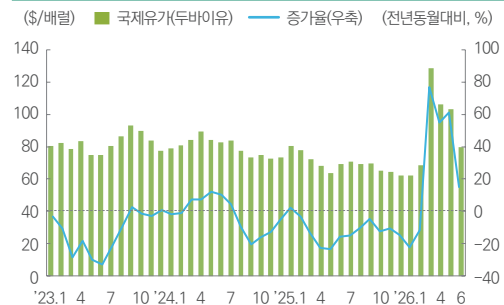
- 에너지 수입은 원유수입가격이 상승하면서 45.1% 증가
- 비에너지 수입은 반도체제조용장비(41.3%), 컴퓨터(53.2%)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동월 대비 27.0% 증가
 - 에너지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6.9 → (5월)15.7 → (6월)45.1
 - 비에너지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18.8 → (5월)22.0 → (6월)27.0
 - 원유수입가격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44.7 → (5월)61.8 → (6월)67.0

| 그림 34 | 부문별 수입 추이



자료: 산업통상부, 「수출입 동향」

| 그림 35 | 국제유가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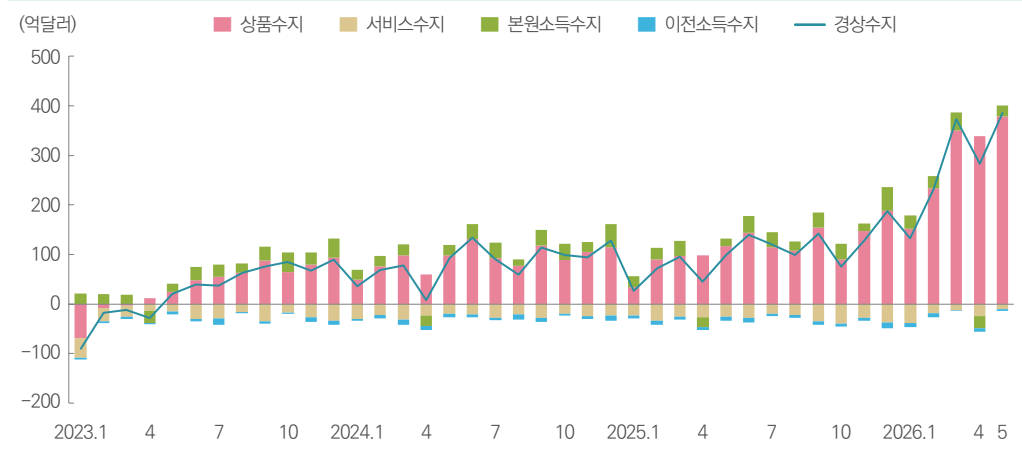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부, 「수출입 동향」, 관세청

나. 경상수지

■ 5월 「경상수지」는 상품수지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흑자 규모 확대

- 경상수지는 386.1억달러로 37개월 연속 흑자 기록
 - 경상수지(억달러): ('26.3월)373.3 → (4월)282.9 → (5월)386.1
- 상품수지는 일반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어 378.6억달러 흑자
 - 상품수지(억달러): ('26.3월)350.7 → (4월)338.8 → (5월)378.6
 - 일반상품수지(억달러): ('26.3월)327.7 → (4월)320.9 → (5월)349.2
 - 중계무역순수출(억달러): ('26.3월)21.2 → (4월)15.6 → (5월)21.9
- 서비스수지는 10.9억달러 적자로 적자 규모 축소되었는데, 여행수지와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기타사업서비스 수지의 적자 폭이 줄어든 데 기인
 - 서비스수지(억달러): ('26.3월)-13.1 → (4월)-24.2 → (5월)-10.9
 - 여행수지(억달러): ('26.3월)1.4 → (4월)-0.3 → (5월)0.5
 -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(억달러): ('26.3월)-3.3 → (4월)-4.6 → (5월)0.7
 - 기타사업서비스수지(억달러): ('26.3월)-13.6 → (4월)-15.8 → (5월)-11.1
- 본원소득수지는 투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21.7억달러 흑자
 - 본원소득수지(억달러): ('26.3월)35.9 → (4월)-25.3 → (5월)21.7
 - 투자소득수지(억달러): ('26.3월)37.1 → (4월)-23.8 → (5월)23.0

그림 36 | 항목별 경상수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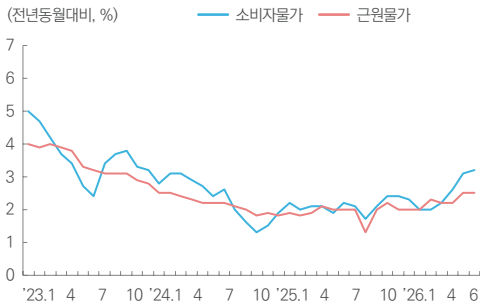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「국제수지」

06 소비자물가

■ 6월 「소비자물가」는 상품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폭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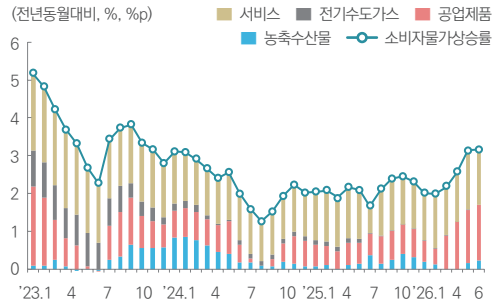
- 소비자물가는 상품(3.8%)을 중심으로 서비스(2.6%)도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3.2% 상승
 - 소비자물가상승률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2.6 → (5월)3.1 → (6월)3.2
 - 상품 물가상승률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2.7 → (5월)3.5 → (6월)3.8
 - 서비스 물가상승률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2.4 → (5월)2.8 → (6월)2.6
 - 근원물가상승률^[6]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2.2 → (5월)2.5 → (6월)2.5

| 그림 37 |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

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소비자물가동향」

| 그림 38 |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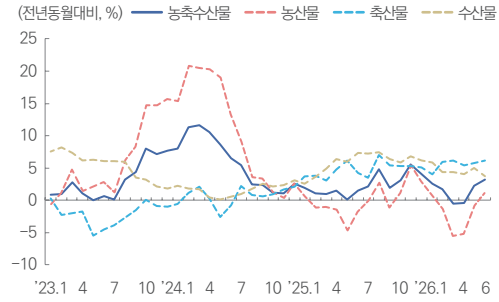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소비자물가동향」

- 농축수산물 물가는 축산물과 수산물 위주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.2% 상승
 - 농축수산물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-0.5 → (5월)2.2 → (6월)3.2
 - 농산물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-5.2 → (5월)-0.8 → (6월)1.1
 - 축산물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5.5 → (5월)5.8 → (6월)6.2
 - 수산물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4.0 → (5월)5.0 → (6월)3.7
- 공업제품 물가는 석유류(24.7%)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며 4.4% 상승
 - 공업제품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3.8 → (5월)4.2 → (6월)4.4
 - 가공식품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1.0 → (5월)0.8 → (6월)0.9
 - 석유류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21.9 → (5월)24.2 → (6월)24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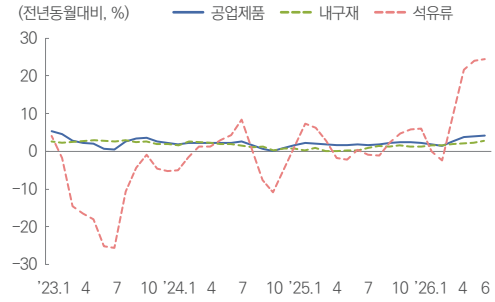
[6]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

| 그림 39 | 농축수산물 물가

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소비자물가동향」

| 그림 40 | 공업제품 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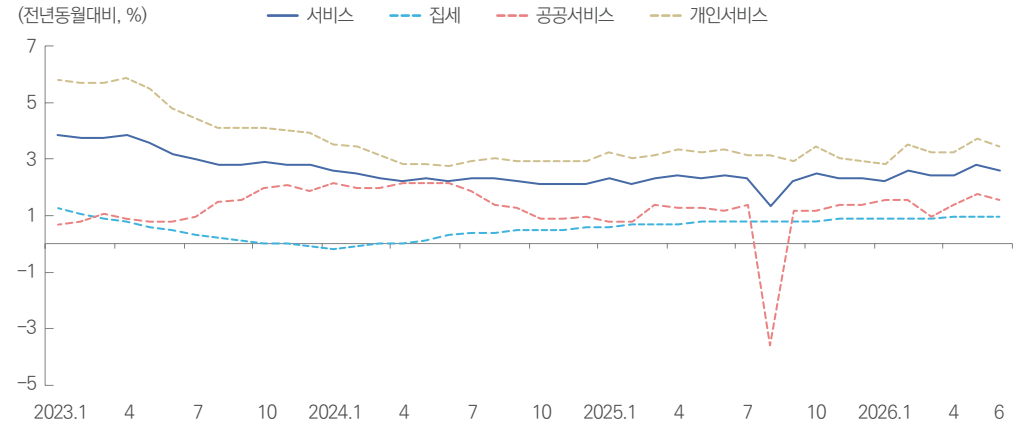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소비자물가동향」

• 서비스 물가는 개인서비스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월동월대비 2.6% 상승

- 서비스 물가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2.4 → (5월)2.8 → (6월)2.6
- 집세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1.0 → (5월)1.0 → (6월)1.0
- 공공서비스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1.4 → (5월)1.8 → (6월)1.6
- 개인서비스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3.2 → (5월)3.7 → (6월)3.4

| 그림 41 | 서비스 물가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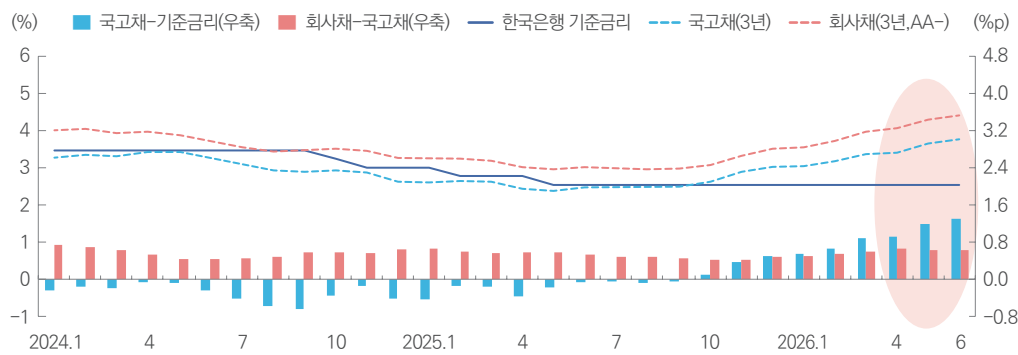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가데이터처, 「소비자물가동향」

01 금리 및 주가

■ 「국고채금리」는 6월 중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나 상승 폭은 둔화

- 국고채 금리는 3.79%로 전월대비 0.11%p 상승하여 전월(0.27%p)보다 상승폭이 둔화
 - 국고채금리(3년물, 월평균, %): ('26.4월)3.41 → (5월)3.68 → (6월)3.79
 - 금리차(국고채 3년물-기준금리, %p): ('26.4월)0.91 → (5월)1.18 → (6월)1.29
 - 기준금리는 2.50%로 14개월 연속 동결
- 회사채 금리는 4.43%로 전월대비 0.11%p 상승하였고, 회사채와 국고채 간 위험 스프레드는 전월보다 소폭 확대
 - 회사채금리(3년물 AA-, 월평균, %): ('26.4월)4.07 → (5월)4.32 → (6월)4.43
 - 위험 스프레드(회사채3년물-국고채3년물, %p): ('26.4월)0.66 → (5월)0.63 → (6월)0.64

| 그림 1 | 기준금리 및 채권금리 월별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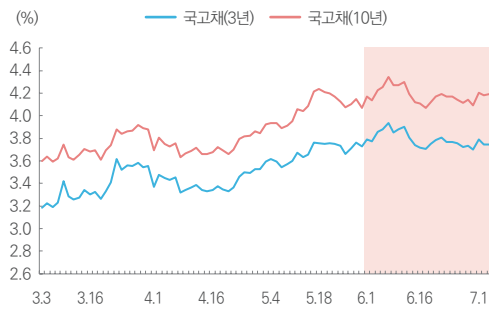


주: 채권금리는 월평균 기준
 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■ 채권금리의 일별 추이를 보면 6월 들어 초순까지 상승 흐름을 보이다 하락 전환되어 중순 이후 횡보하는 흐름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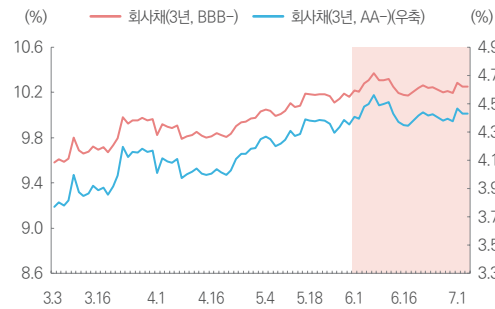
- 국고채 3년물은 6월 초순(6.8일 3.94%)까지 상승하였으나, 이후 하락 전환되어 중순 이후 횡보(6.30일 3.70%)
 - 국고채 10년물은 3년물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 6.8일 4.35%까지 상승하였으나, 이후 하락하여 6.30일 4.09%를 기록
- 회사채 3년물(AA-)은 6.8일(4.57%)까지 전월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으나 이후 하락 전환되어 6.30일 4.38%까지 하락
 - 비우량 회사채 3년물 금리(BBB-, 투자적격등급 하단)는 6.8일(10.37%) 이후 하락 전환되어 6.30일 10.19%를 기록하였고, 신용 스프레드(BBB-와 AA- 금리 간 차이)는 5.82%p 수준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

| 그림 2 | 국고채 금리 일별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

| 그림 3 | 회사채금리 일별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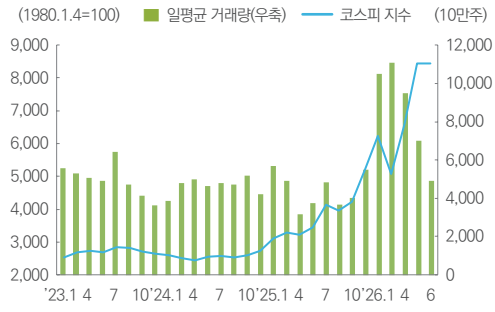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, 금융투자협회

■ 6월 중 「코스피 지수」는 일별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월말 대비 보합 흐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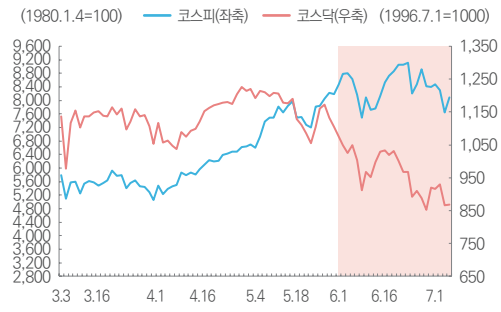
- 코스피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월말 대비 보합 흐름을 보였으며, 코스닥은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냄
 - 코스피 지수는 5월 중 반도체 대형주 등을 중심으로 전월(30.6%)에 이어 28.4% 상승하였으나, 6월 들어 변동성이 확대되며 전월 수준 유지
 - 코스피 지수(월말, 1980.1.4.=100): ('26.4월)6,598.9 → (5월)8,476.2 → (6월)8,476.5
 - 코스닥 지수(월말, 1996.7.1.=100): ('26.4월)1,192.4 → (5월)1,074.8 → (6월)916.6
-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6월 4억 9,002만주로 전월대비 29.9% 감소
 - 코스피 일평균 거래량(10만주): ('26.4월)9,471.8 → (5월)6,987.9 → (6월)4,900.2

| 그림 4 | 코스피 지수 및 거래량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, 한국거래소

| 그림 5 | 일별 주가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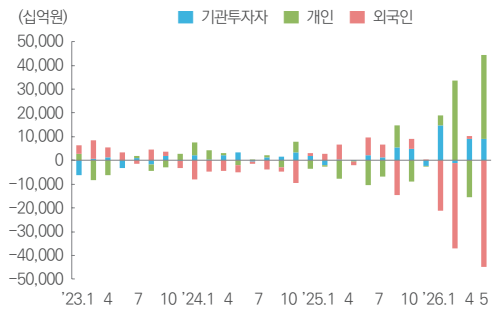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, 한국거래소

■ 코스피 시장의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5월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, 외국인투자자는 순매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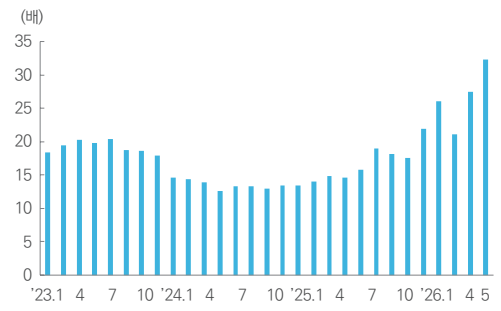
- 5월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, 외국인 투자자는 대량 순매도
 - 5월 투자자별 순매수(십억원): 기관투자자 9,197, 개인 35,094, 외국인 -44,715
 - 주가이익비율(PER, 배): ('26.3월)21.01 → (4월)27.36 → (5월)32.28

| 그림 6 | 투자주체별 순매수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, 한국거래소

| 그림 7 | 코스피 주가이익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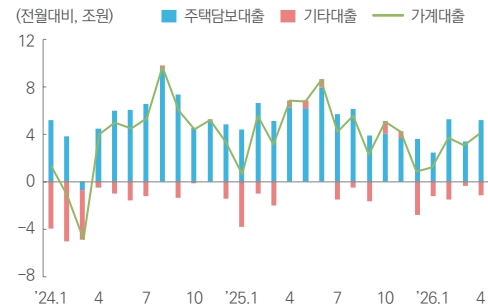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, 한국거래소

02 가계대출 및 부동산

■ 4월 「가계대출」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속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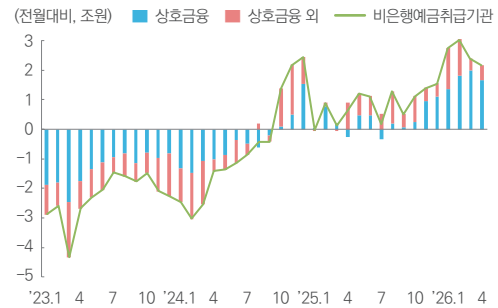
-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잔액은 전월대비 4.0조원 늘어난 1,338.6조원
 - 용도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대비 5.1조원 늘어난 921.1조원을 기록하였으며, 기타대출은 전월대비 1.1조원 감소한 417.5조원을 기록
 - 가계대출(조원): ('26.2월)1,331.6 → (3월)1,334.6 → (4월)1,338.6
 - 주택담보대출(조원): ('26.2월)912.6 → (3월)916.0 → (4월)921.1
 - 기타대출(조원): ('26.2월)418.9 → (3월)418.6 → (4월)417.5
-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잔액은 전월대비 2.2조원 늘어난 327.2조원
 -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(전월대비, 조원): ('26.2월)322.6 → (3월)325.0 → (4월)327.2
 - 상호금융 가계대출(조원): ('26.2월)180.5 → (3월)182.5 → (4월)184.2
 - 새마을금고 가계대출(조원): ('26.2월)67.3 → (3월)67.9 → (4월)68.0

| 그림 8 |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

| 그림 9 |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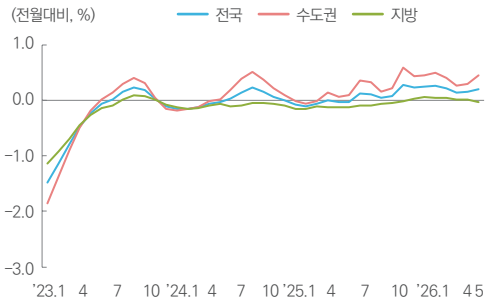
■ 4월 국내은행의 「가계대출 연체율」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

- 국내은행의 전국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대비 0.02%p 증가한 0.42% 기록
 - 가계대출 연체율(전국, %): ('26.2월)0.45 → (3월)0.40 → (4월)0.42
 - 가계대출 연체율(서울, %): ('26.2월)0.52 → (3월)0.45 → (4월)0.47

■ 5월 「주택매매가격」, 「전월세통합지수」 전월대비 모두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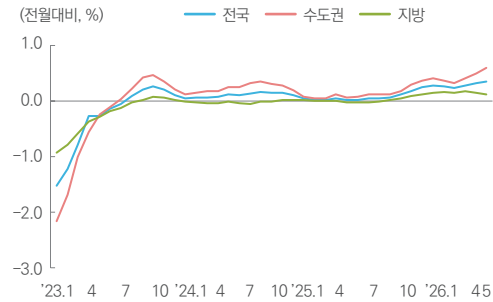
-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통합지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각각 0.21%, 0.36% 상승
 - 주택매매가격지수(전국, 전월대비, %): ('26.3월)0.15 → (4월)0.16 → (5월)0.21
 - 전월세통합지수(전국, 전월대비, %): ('26.3월)0.29 → (4월)0.33 → (5월)0.36

| 그림 10 | 권역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추이



주: 수도권은 서울·인천·경기지역, 지방은 수도권 이외
자료: 한국부동산원, 「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」

| 그림 11 | 권역별 주택 전월세통합지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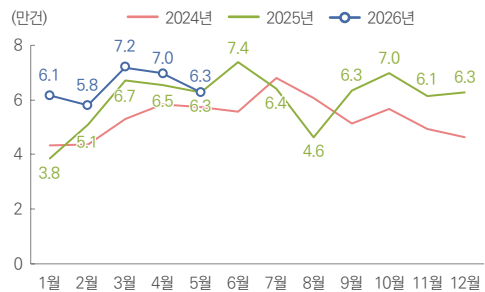


주: 수도권은 서울·인천·경기지역, 지방은 수도권 이외
자료: 한국부동산원, 「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」

■ 5월 「주택매매 거래량」은 전월대비 감소, 「전월세 거래량」은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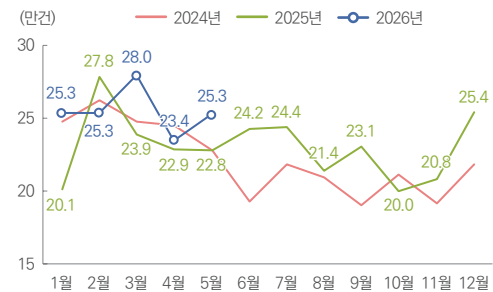
- 전국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62,703건으로 전월대비 10.1% 감소하였으며, 전월세거래량은 252,615건으로 전월대비 7.8% 증가
 - 주택매매 거래량(건): ('26.3월)71,975 → (4월)69,755 → (5월)62,703
 - 전월세 거래량(건): ('26.3월)279,688 → (4월)234,339 → (5월)252,615

| 그림 12 |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 추이



자료: 국토교통부

| 그림 13 |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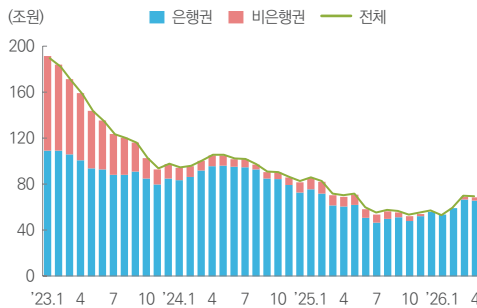
주: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
자료: 국토교통부

가. 기업대출

■ 4월 「기업대출」은 은행권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68.4조원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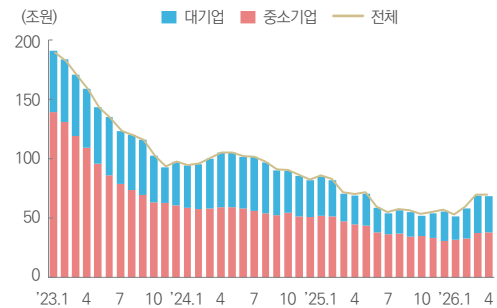
- 기업대출은 전년대비 68.4조원 증가한 1,946조원
 - 기업대출증감액(전년대비, 조원): ('26.2월)58.1 → (3월)68.8 → (4월)68.4
 - 기업대출잔액(조원): ('26.2월)1,921.3 → (3월)1932.2 → (4월)1946.0
- 업권별로는 은행권(65.8조원)을 중심으로 증가
 - 은행권 대출증감액(전년대비, 조원): ('26.2월)58.9 → (3월)66.4 → (4월)65.8
 - 비은행권 대출증감액(전년대비, 조원): ('26.2월)-0.9 → (3월)2.4 → (4월)2.6
 - 은행권 대출잔액(조원): ('26.2월)1,457.9 → (3월)1,466.6 → (4월)1,477.2
 - 비은행권 대출잔액(조원): ('26.2월)463.4 → (3월)465.7 → (4월)468.8
- 규모별로는 대기업에서 전년대비 30.6조원, 중소기업에서는 37.8조원 증가
 - 대기업 대출증감액(전년대비, 조원): ('26.2월)25.3 → (3월)31.4 → (4월)30.6
 - 중소기업 대출증감액(전년대비, 조원): ('26.2월)32.7 → (3월)37.3 → (4월)37.8
 - 대기업 대출잔액(조원): ('26.2월)370.0 → (3월)373.6 → (4월)382.2
 - 중소기업 대출잔액(조원): ('26.2월)1,551.3 → (3월)1,558.7 → (4월)1,563.8

| 그림 14 | 금융기관 기업대출 증가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

| 그림 15 | 규모별 기업대출 전월대비증감액

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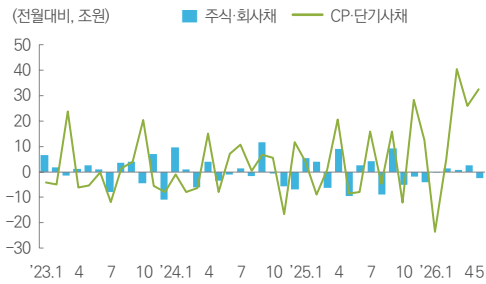
- 4월 기업대출 은행대출금 연체율은 0.74%로 전월대비 0.06%p 상승
 - 기업대출 은행대출금 연체율(%): (2월)0.76 → (3월)0.68 → (4월)0.74

나. 주식 및 채권 발행

■ 5월 기업의 「직접자금조달」은 단기사채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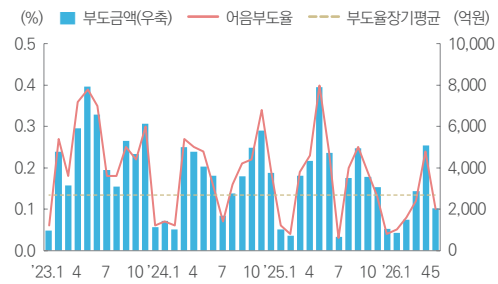
- 주식·회사채 총 발행액은 20조 1,409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2.5조원(-10.9%) 감소
 - 주식·회사채(조원): ('26.3월)20.0 → (4월)22.6 → (5월)20.1
 - 주식(조원): ('26.3월)0.4 → (4월)0.4 → (5월)1.4
 - 회사채(조원): ('26.3월)19.5 → (4월)22.2 → (5월)18.8
- CP·단기사채 총 발행액은 259조 3,87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32조 7,832억원(14.5%) 증가
 - CP·단기사채(조원): ('26.3월)200.5 → (4월)226.6 → (5월)259.4
 - CP(조원): ('26.3월)46.8 → (4월)56.3 → (5월)45.8
 - 단기사채(조원): ('26.3월)153.7 → (4월)170.3 → (5월)213.6
- 어음 부도액은 2,045억원으로 전월대비 감소, 부도율은 0.10%로 전월대비 0.14%p 감소
 - 어음 부도액(억원): ('26.3월)2,872 → (4월)5,075 → (5월)2,045
 - 어음 부도율(%): ('26.3월)0.12 → (4월)0.24 → (5월)0.10

| 그림 16 | 직접금융 조달실적 추이



자료: 금융감독원,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

| 그림 17 | 부도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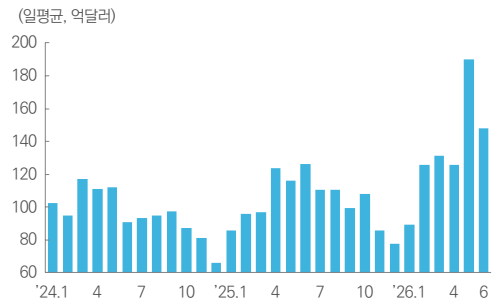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나. 외환거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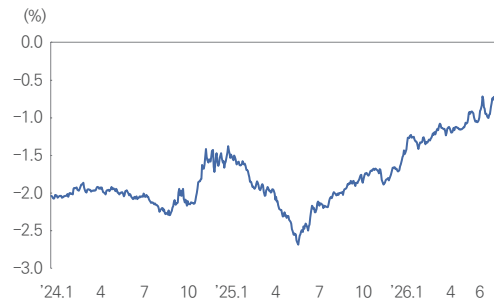
■ 6월 일평균 「원/달러 현물환 거래액」은 148.2억달러로 전월대비 감소

- 스왑레이트는 전월대비 13bp 상승
 - 원/달러 현물환 거래액(일평균, 억달러): ('26.4월)125.9 → (5월)190.1 → (6월)148.2
 - 스왑레이트^[10](3개월물 일평균, %): ('26.4월)-1.14 → (5월)-0.99 → (6월)-0.86

| 그림 22 | 원/달러 현물환 거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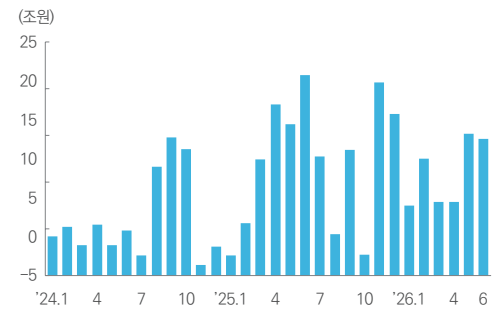
| 그림 23 | 스왑레이트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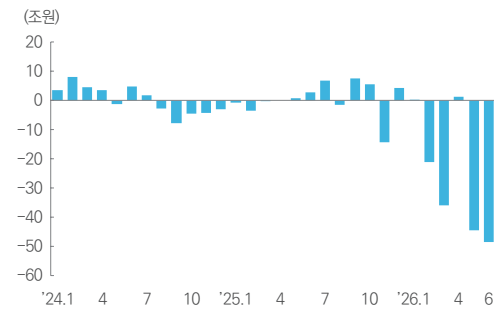
■ 6월 중 「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자금」은 33.8조원 순유출

- 외국인 투자자는 채권을 14.7조원 순매수한 반면 주식을 48.4조원 순매도
 - 채권 순매수(전체, 조원): ('26.4월)7.9 → (5월)15.2 → (6월)14.7
 - 주식 순매수(전체, 조원): ('26.4월)1.2 → (5월)-44.5 → (6월)-48.4

| 그림 24 | 외국인 투자자 채권 순매수 대금 추이



| 그림 25 | 외국인 투자자 주식 순매수 대금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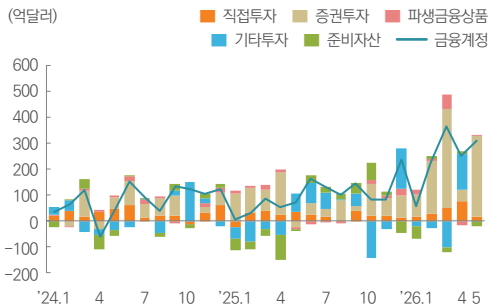


[10] 스왑레이트(swap rate)는 현물환율 대비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(=(선물환율-현물환율)/현물환율)를 연율(%)로 표시한 것으로 외화자금(달러자금)의 조달 비용(환헤지 비용)의 움직임을 나타내며, 스왑레이트의 상승은 환헤지 비용의 감소를 의미(하락은 비용의 증가를 의미).

■ 5월 「국제수지 금융계정」은 순자산이 310.8억달러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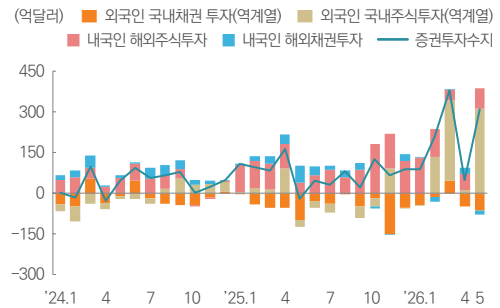
- 증권투자 등을 통해 외화자금이 순유출
 - 직접투자 수지(억달러): ('26.3월)51.2 → (4월)76.0 → (5월)18.7
 - 증권투자 수지(억달러): ('26.3월)380.5 → (4월)47.1 → (5월)308.9
 - 기타투자 수지(억달러): ('26.3월)-99.3 → (4월)136.5 → (5월)-1.9

| 그림 26 | 금융계정 순자산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

| 그림 27 | 증권투자수지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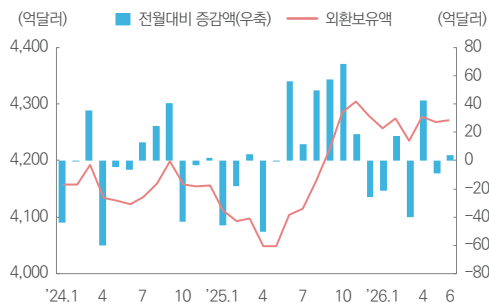
주: 내국인 해외투자는 자산(+)이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부채(-)
자료: 한국은행

다. 국제신인도 및 대외 차입여건

■ 6월 말 「외환보유액」은 4,273.6억달러

- 외환보유액은 전월대비 3.7억달러 증가
 - 외환보유액(기말기준, 억달러): ('26.4월)4,278.8 → (5월)4,269.9 → (6월)4,273.6
- CDS 프리미엄(국가 신용위험)은 전월말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
 - CDS 프리미엄(5년물 기말기준, bp): ('26.4월)29.2 → (5월)22.5 → (6월)22.6

| 그림 28 | 외환보유액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

| 그림 29 | CDS 프리미엄 추이



자료: Bloomberg

III

해외경제 동향

■ 미국경제는 생산과 소비지표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 확대

- 전산업생산(전월대비, %): ('26.3월)-0.3 → (4월)0.9 → (5월)0.1
- 소매판매(전월대비, %): ('26.3월)2.0 → (4월)0.3 → (5월)1.0
- 소비자물가지수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3.3 → (4월)3.8 → (5월)4.2

■ 중국경제는 산업생산이 완만히 반등한 반면, 소비는 위축 전환되고 투자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성장 모멘텀 약화

- 산업생산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5.7 → (4월)4.1 → (5월)4.5
- 소매판매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1.7 → (4월)0.2 → (5월)-0.6
- 고정자산투자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3월)1.7 → (4월)-1.6 → (5월)-4.1
- 제조업PMI: ('26.4월)50.3 → (5월)50.0 → (6월)50.3

■ 유로지역은 실물경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가운데 물가는 소폭 안정화 추세

- 산업생산(전월대비, %): ('26.2월)0.3 → (3월)0.4 → (4월)0.1
- 소매판매(전월대비, %): ('26.3월)0.8 → (4월)-0.3 → (5월)0.2
- 종합PMI: ('26.4월)48.8 → (5월)48.5 → (6월)50.0
- 소비자물가(전년동월대비, %): ('26.4월)3.0 → (5월)3.2 → (6월)2.8

■ 일본경제는 생산의 낮은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소비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임

- 광공업생산(전월대비, %): ('26.3월)-0.4 → (4월)0.5 → (5월)0.5
- 소매판매(전월대비, %): ('26.3월)1.0 → (4월)2.1 → (5월)1.9
- 종합PMI: ('26.4월)52.2 → (5월)51.1 → (6월)52.8

주요국 경제 지표

(전기대비, %)

		2024	2025					2026			
		연간	연간	1Q	2Q	3Q	4Q	1Q	4월	5월	6월
생산	미국	-0.3	1.1	1.0	0.5	0.5	-0.3	0.6	0.9	0.1	-
	유로	-0.2	0.1	1.1	-0.5	-0.1	-0.7	-0.1	0.1	-	-
	일본	-3.0	0.1	0.0	-0.5	-1.0	0.2	2.5	0.5	0.5	-
소비	미국	3.2	2.7	0.6	2.5	3.5	2.4	1.5	0.3	1.0	-
	유로	0.2	0.2	0.2	0.3	0.1	0.2	0.1	-0.3	0.2	-
	일본	2.3	1.7	1.1	0.1	-1.1	0.6	1.5	2.1	1.9	-
물가	미국	2.9	2.6	2.7	2.4	2.9	2.7	2.7	3.8	4.2	-
	유로	2.4	2.1	2.3	2.0	2.1	2.1	2.1	3.0	3.2	2.8
	일본	2.7	3.2	3.8	3.4	2.9	2.7	1.4	1.4	1.5	-
국채 금리	미국	4.2	4.2	4.2	4.2	4.2	4.2	4.3	4.3	4.5	4.5
	유로	2.4	2.6	2.5	2.5	2.7	2.7	2.8	3.0	2.9	2.9
	일본	0.9	1.6	1.5	1.5	1.7	2.1	2.4	2.5	2.7	2.6

주: 1.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

2. 주요국 국채금리는 10년물 기준이며 연간은 연평균, 분기(월)는 분기(월)말 기준

자료: Bloomberg, CEIC

경제이슈 분석

IV

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

“경제이슈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
국회에산정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”

IV

최근 반도체 수출 호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

거시경제분석과 김원혁 분석관(02-6788-4657)

CHAPTER

01 검토배경

■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

- 통상정책 변화,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,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, '26년 6월 기준 통관수출은 IT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70.9% 증가
-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0%를 웃도는 경제 구조에서, '26년 수출은 우리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

■ 다만, 반도체 등 IT 중심의 수출 호조가 내수 활력으로 이어질지는 다소 불확실한 상황

- IT 관련 업종은 타 업종에 비해 수출 성과가 경제 전반의 고용·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
 - 반도체 업종의 고용유발계수^[1]는 제조업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, 고용효과도 대기업과 고소득 직종에 집중돼 있어 파급이 제한적
- 글로벌 AI 수요 급증에 따른 전례 없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이에 따른 주요 기업의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,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 및 기록적인 성과급 지급 등 과거와는 차별화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
 - AI 반도체 붐이 촉발한 수출 급증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은 증권가 전망 기준 올해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
 - '26년 주요 반도체 기업의 자본지출(CAPEX)은 '17~'18년 슈퍼사이클 당시보다 약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, 10년 이상을 내다본 중장기 투자계획도 함께 추진
 - 또한 영업이익 개선에 비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급 지급이 예상되며 주가 상승도 동반되고 있음

[1] 고용유발계수는 해당 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·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임금근로자 수를 나타냄. 2023년 산업연관표 기준 제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3.9, 반도체 부문은 2.0으로 조사됐음.

| 표 1 |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차별성

		반도체 슈퍼사이클('17~'18년) ¹⁾		AI 반도체 붐('26년~) ²⁾	
주요 수출 품목		D램(범용 DDR4), 낸드플래시		HBM, 서버용 고용량 D램, SSD	
반도체 수출 증가율(max)		42%(70%)		163%(200%)	
		삼성전자	SK하이닉스	삼성전자	SK하이닉스
영업이익 규모(연간)		54조('17년) 59조('18년)	14조('17년) 21조('18년)	383조('26년 ⁵⁾)	276조('26년 ⁵⁾)
중장기 설비투자 계획		3~5년 투자 계획		10~15년 장기투자계획	
		36조원	20조원	2,655조원	2,100조원
성과급	목표달성장려금 (TAI)	기본급 최대 100%	기본급 최대 100% (생산성장려금)	동일	
	초과이익성과급 (OPI)	연봉 최대 50%	연봉 최대 50%		
	특별상여금 또는 특별경영 성과급	기본급 400% ('17.11월 일회성)	없음	(DS)영업이익의 10.5%	영업이익의 10%
코스피지수		약 20~30%		약 160%	

주: 1. 수출이 크게 늘어난 2016년 11월~2018년 11월로 정의

2. 가장 최신인 2026년 6월까지 자료를 분석

3. 올해 중장기 설비투자 계획은 삼성과 SK그룹에서 발표한 수치를 인용

자료: 관세청, KOSIS, 기업공시자료, VALUEsearch, FnGuide(26.07.15. 기준), 언론보도종합

■ 최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성장 및 내수 파급 경로를 중심으로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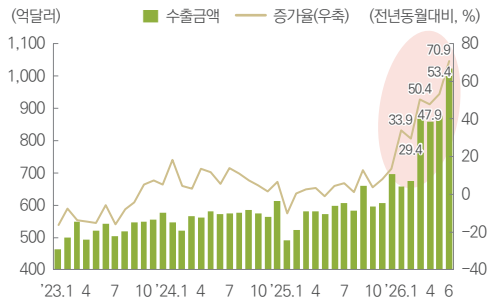
-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이익 증가는 세수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등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 논의와도 맞물려 있어, 수출 호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
- 최근 수출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,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여타 산업으로의 유발효과, 설비 투자·소비 등으로의 내수 파급 효과를 순차적으로 분석
- 이를 바탕으로 수출 호조가 경제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질지 가늠하고,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

02 최근 수출 동향 및 특징

■ '26년 우리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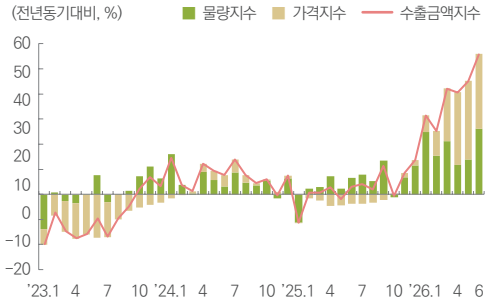
- '26년 상반기 누적 통관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8.4% 증가하면서 4,967억 달러를 기록
 - 3월 이후 통관수출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47%를 상회하며 확대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, 6월에는 70.9%를 기록
 -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 증가율도 1월 13.8%에서 3월 42.3%, 6월 59.9%로 가파르게 확대되는 추세
- 최근 수출금액의 증가는 가격요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물량 증가도 동반되고 있음
 - '26년 상반기 수출금액지수 평균 증가율(40.1%)^[2]에서 가격상승이 53.1%, 물량증가가 46.9% 기여
 - ※ '26년 6월 기준 수출금액지수 증가율(55.8%) 중 가격상승이 53.3%(29.8%p), 물량 증가가 46.7%(26.1%p)를 차지

| 그림 1 | 수출 금액 및 증가율 추이



자료: 관세청

| 그림 2 | 수출 가격 및 물량 지수 증가율 추이



주: 수출가격지수 = 수출금액지수/수출물량지수

자료: 한국은행, 국회예산정책처

- '26년 1분기 재화 수출은 실질 GDP 성장률(3.8%)에 4.8%p 기여하였으며, 수입증가를 감안한 순수출 기준으로도 1.8%p 성장에 기여^[3]
 - 재화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최근 5년 중 두 번째로^[4] 높은 수준
 - 반도체·컴퓨터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현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연간 수출의 성장기여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
 - 한편, 수출가격 상승폭이 수입가격을 상회하면서 교역조건 개선으로 이어져 실질 구매력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

[2] 수출금액 증가율의 가격·물량 요인 분해 시 일반 산술 분해(가격증가율 + 물량증가율 = 금액증가율)는 증가율이 클 경우 교차항이 발생해 오차가 커지므로, 정확한 분해를 위해 로그 분해 방식($\ln(\text{금액}) = \ln(\text{가격}) + \ln(\text{물량})$)을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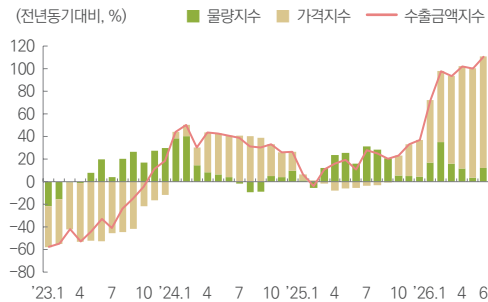
[3] 수출 증가는 GDP 구성항목 중 순수출을 직접 개선시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로 작용

[4] 최근 5년 중 재화수출의 성장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분기는 2021년 2분기로 7.4%p 기여

■ 품목별로는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비IT 품목과의 격차가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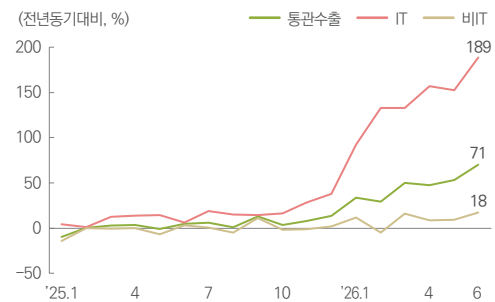
- 반도체 수출은 '26년 상반기 누적 기준 전년동기대비 162.6% 증가하였으며,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'25년(연간) 24%에서 '26년(1~6월) 39%로 약 15%p 상승
- 최근 반도체 품목의 수출금액 증가는 가격요인이 주도
 - '26년 상반기 반도체 수출금액지수 평균 증가율(96.2%) 중 가격상승이 83.5%, 물량증가가 16.5% 기여
 - ※ '26년 6월 기준 반도체 수출금액지수 증가율(110.9%) 중 가격상승이 89.1%(98.8%p), 물량 증가가 10.9%(12.1%p)를 차지

| 그림 3 | 반도체 수출 가격 및 물량 지수 증가율 추이



주: 수출가격지수 = 수출금액지수/수출물량지수
자료: 한국은행, 국회예산정책처

| 그림 4 | IT 품목과 비IT 품목의 수출증가율 추이



주: IT품목에는 반도체, 컴퓨터, 무선통신기기, 디스플레이 품목이 포함됨
자료: 한국무역협회

- IT와 비IT 품목 간의 수출증가율 격차는 뚜렷하게 확대되는 양상
 - 반도체·컴퓨터·디스플레이·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 수출은 6월에 189% 증가하고 '26년 상반기 누적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146% 증가하였으나, 비IT 품목 수출은 6월에는 전년동기대비 18%, 상반기에는 10% 증가하며 그치며 격차가 확대
 - ※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수출금액이 늘어난 석유제품을 제외하면 비IT 품목의 상반기 누적증가율은 7.3%에 그침

| 표 2 | 주요 품목별 수출 금액과 증가율('26년 상반기 누적)

	반도체	자동차	석유제품	일반기계	석유화학	컴퓨터	선박
금액(억달러)	1,923.8	359.4	301.3	229.9	228.5	212.0	165.6
증가율(%)	162.6	-1.1	39.6	-2.9	5.2	262.1	18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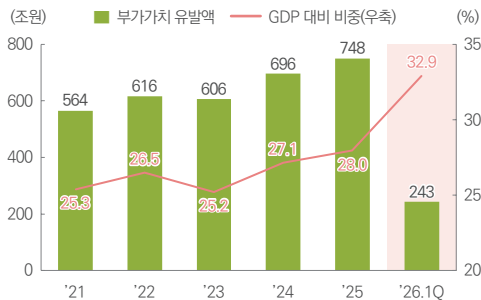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03 최근 수출 호조의 거시경제 파급 효과

■ ① (산업연관 효과)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규모 및 GDP 대비 비중이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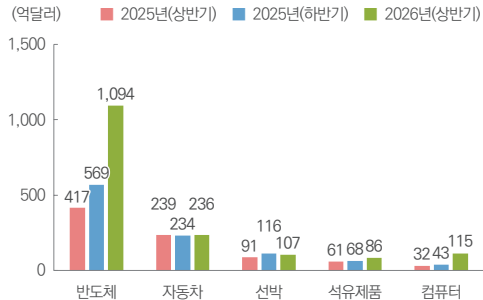
-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직접 관련 산업과 원재료·부품·소재 등을 공급해주는 후방산업과 같은 간접 연계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추정^[5]
 - 최종 수출수요에 대한 부가가치 유발액·GDP 비중과 주요 품목별 유발액을 중심으로 분석^[6]
- '25년 수출로 유발된 부가가치액은 약 748조원으로 GDP 대비 28%를 기록하였으며, '23년 이후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
 - '26년 1분기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GDP 대비 32.9%로 최근 5개년 중 최고 수준

| 그림 5 |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액과 GDP 대비 비중



주: '24년 이후 수치는 추정치
자료: 한국은행, 국회예산정책처

| 그림 6 | 주요 품목별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액



자료: 한국은행, 관세청, 국회예산정책처

- 최근 수출금액이 급증하면서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낮다고 평가되는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액이 큰 폭으로 확대
 - '26년 상반기 기준 반도체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1,094억달러, 컴퓨터는 115억달러로 추산
 -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준 반도체(0.57)·컴퓨터(0.54)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자동차(0.66)·선박(0.65) 등 타 산업 대비 낮은 수준^[7]이나, 수출금액 급증으로 부가가치 유발액 자체는 크게 확대
 - 최근 HBM·서버용 고용량 D램·SSD 등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의 수출 구조 확대를 고려하면 부가가치 유발액은 더 커질 가능성

[5] 2024~2026년 수치는 최신자료인 2023년 산업연관표(연장표)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결과로 2023년의 경제구조와 상황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

[6] 자세한 분석방법론은 [BOX 1]을 참조

[7] 반도체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제조업 평균 대비 낮은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핵심 중간재의 해외 의존도로, 2023년 산업연관표 기준 반도체의 수입의존도(0.334)는 제조업 평균(0.233)은 물론 자동차(0.110)·선박(0.172) 대비 현저히 높았음

- 다만, 반도체의 후방산업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평가
 - '26년 상반기 기준 반도체 수출로 인해 원재료·부품·소재 등을 공급해 주는 후방산업에 대한 부가가치 유발액은 327억달러로 추산
 - 반도체의 간접 부가가치 유발액의 절대 규모는 타 품목을 상회했지만, 전체 부가가치 유발액 대비 간접효과 비중은 여전히 낮아 후방산업 파급효과는 제한적
 - 반도체의 간접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낮은 데는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반도체 제조용 장비(노광, 측정, 이온주입, 식각 등)와 재료 및 부품(아산화질소, 나노패턴용 웨이퍼 등)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(국산화율 낮음), 설계·제조·패키징을 내부에서 처리하는 수직계열화 구조로 인해 외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

| 표 3 | 주요 품목의 부가가치유발계수

	반도체	자동차	선박	석유제품	컴퓨터	제조업
부가가치유발계수(A+B)	0.57	0.66	0.65	0.29	0.54	0.59
- 직접효과(A)	0.40	0.27	0.23	0.19	0.25	0.30
- 간접효과(B)	0.17	0.39	0.42	0.10	0.29	0.29

주: 직접효과는 부가가치유발계수표 상에서 대각행렬에 있는 수치로 정의하며,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23년 기준
 자료: 한국은행, 국회예산정책처

[BOX 1]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측정 방법론

■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액의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두 가지 지표를 측정

- ① (최종 수출수요에 대한 부가가치 유발액 및 비중) 수출(국민계정)이 발생시킨 부가가치 유발액을 계산하고, 시계열 비교를 위해 GDP 대비 비중으로 추이 분석
 -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수출 1원 증가 시 직·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 금액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

$$\text{부가가치유발액}_{2026\text{년}} = (\text{GDP상})\text{수출액}_{2026\text{년}} \times \text{부가가치유발계수}_{2023\text{년}}$$

$$\text{부가가치유발액 비중}_{2026\text{년}} = \text{부가가치유발액}_{2026\text{년}} / \text{GDP}_{2026\text{년}}$$

- ② (주요 품목별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액) 수출(통관기준)이 발생시킨 주요 품목별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비교
 - 주요 품목별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수출 1달러(수출 통계가 달러 기준) 증가 시 유발되는 GDP 증가분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(반도체 예시)

$$\text{부가가치유발액}_{\text{반도체}}^{2026\text{년}} = \text{통관수출액}_{\text{반도체}}^{2026\text{년}} \times \text{부가가치유발계수}_{\text{반도체}}^{2023\text{년}}$$

※ 2024~2026년은 2023년 산업연관표(연장표)의 부가가치유발계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로, 2023년의 경제구조와 상황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

■ ② (투자 확대)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개선 및 투자여력 확대

- 수출 호조로 반도체 등 IT 관련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^[8]
 - (삼성전자) 영업이익은 '26년 1분기 57.2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^[9], 4분기에는 약 124조원까지 확대되면서 연간으로는 약 383조원을 기록할 전망
 - (SK하이닉스) '26년 1분기 영업이익은 37.6조원으로, 4분기에는 약 91조원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연간 약 276조원을 기록한 전망
 - 선박, 석유화학, 방산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전년에 비해 개선될 전망

| 표 4 | 주요 제조업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

(단위: 조원)

	2025년			2026년				
	3분기	4분기	연간	1분기	2분기 ^E	3분기 ^E	4분기 ^E	연간
삼성전자	12.2	20.1	43.6	57.2	89.4	113.7	124.4	383.2
SK하이닉스	11.4	19.2	47.2	37.6	64.8	82.0	91.3	275.8
현대차	2.5	1.7	11.5	2.5	3.1	3.2	3.1	11.8
LG전자	0.7	-0.1	2.5	1.7	1.6	0.9	0.3	4.2
HD한국조선해양	1.1	1.0	3.9	1.4	1.4	1.4	1.6	5.7
한화	1.3	0.4	4.2	1.3	1.5	1.7	1.8	5.6
GS	0.9	0.8	2.9	1.3	1.2	1.0	0.8	4.2

주: 2026년 2분기 이후는 FnGuide 컨센서스 기준이며,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실적치임. 그리고 분기와 연간 컨센서스는 별도로 집계하고 있어 합산시 금액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

자료: FnGuide(26.07.15. 기준)

- 주요 기업들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계획을 수립
 - AI 수요 대응 생산능력 확보, 차세대 기술 선점, 공급망 재편·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
 - (삼성전자) AI 반도체 시대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시설투자과 연구개발에 '26년에만 110조 규모의 집행 계획을 발표하였으며, 반도체 클러스터(2,030조원)와 미래산업육성(625조원)을 포함해 2040년까지 국내에 총 2,655조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비전을 발표
 - (SK) 용인 1기 팹에 21.6조원의 추가 투자를 결정하였으며, 글로벌 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,100조원 규모 투자와 1,000조원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(15GW규모) 구축을 추진하는 중장기 투자 전략을 수립
 - (현대차 그룹) '26년에는 17.8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, '26년부터 '30년까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내에 R&D(31.1조원), 경상투자(35.3조원), 전략투자(1.6조원) 등 총 125.2조원을 투자할 계획

[8] '25년 대비 '26년에 늘어나는 영업이익 규모(약 575조원)는 '25년 명목 GDP(2,677조원) 대비 약 21.5% 수준

[9] 2분기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원을 기록

| 표 5 | 주요 기업의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 규모 및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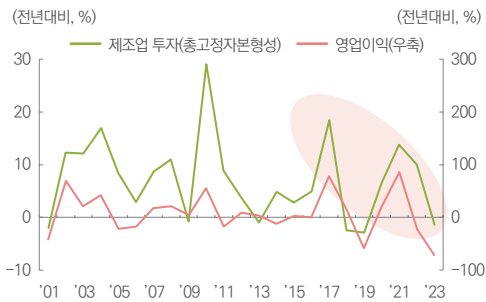
	'25년 CAPEX	'26년 당해 투자계획		중장기 투자계획	
	금액	금액	내용	금액(기간)	내용
삼성 ¹⁾	52.7조원	110조원 이상	시설 및 R&D 투자	2,655조원 (‘40년까지)	반도체클러스터 2,030조원 미래산업육성 625조원
SK ²⁾	27.5조원	약 40조원 ^E	생산능력 확대와 공정 전환가속화, 미래인프라 투자 확대	2,100조원	용인클러스터 600조원 청주 100조원 서남권 400조원 AI데이터 센터 1,000조원
현대차그룹 ³⁾	11.1조원	17.8조원	R&D 7.4조 CAPEX 9조 전략투자 1.4조	125.2조원 (‘30년까지)	미래신사업분야 50.5조원 R&D 38.5조원 경상투자 36.2조원

주: 1. 장래사업-경영계획 정정 공시('26.01.29), 기업가치제고계획('26.03.19), 삼성보도자료('26.06.29)
 2. '26년 투자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특별히 공시된 바 없으며 25년 4분기 컨퍼런스 콜('26.01.30)에서 전년(약 29조원) 대비 상당한 수준
 증가가 있을 것으로 언급, 관련 수치는 증권사 컨센서스 수치임. 참고로 매출대비 약 30% 수준의 CAPEX 투자 전략을 유지하고 있음
 3. 유무형 자산 취득합, 현대자동차 2025년 경영실적 발표('26.01.29), 현대자동차그룹보도자료('25.11.16)

• 과거 제조업 영업이익의 확대 시기에 설비투자가 동반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관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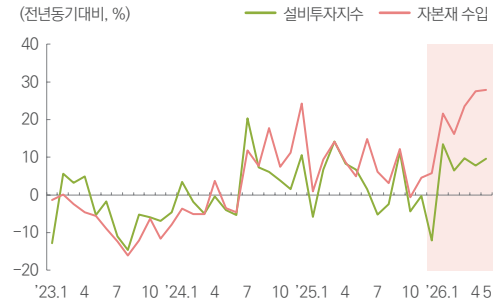
- 영업이익의 증가는 ①외부자금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(Fazzari et al., 1988)와 ②차입제한 완화(Lian and Ma, 2021), 그리고 ③주가 상승에 따른 신주발행 비용 절감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완화되는 효과(Baker et al., 2003) 등의 채널을 통해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존재
- 실제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영업이익과 투자 흐름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확대되는 시기에 투자도 동반 증가하는 패턴을 보임(상관관계 0.7)

| 그림 7 | 제조업의 영업이익과 투자 추이



주: 두 지표 간의 상관관계는 0.709
 자료: 한국은행, VALUEsearch, 국회예산정책처

| 그림 8 | 설비투자지수와 자본재 수입 추이



자료: 국가데이터터, 관세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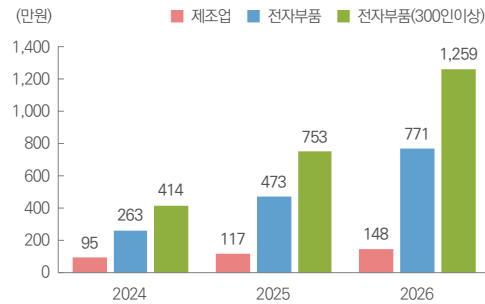
• 최근 설비투자 및 자본재 수입이 확대되는 등 투자 증가세가 가시화되고 있음

- '26년 1분기 기준 설비투자지수는 전년동기대비 4.4% 증가했으며, 4월(7.9%)과 5월(9.7%)에는 증가세가 확대
- 반도체 제조용 장비(38.4%) 등 관련 자본재 수입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올해 평균 20% 이상 기록

■ ③ (소비 활성화) 성과급 확대와 주가 상승은 가계 소비여력 확대로 이어져 소비를 진작시킬 것으로 보이나,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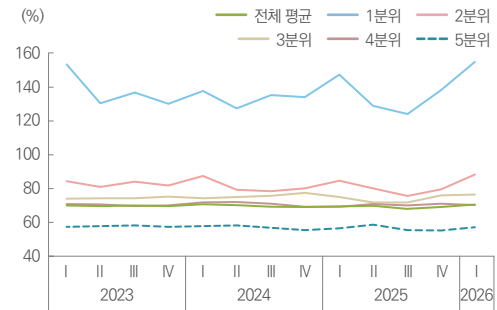
- 주요 기업의 경영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성과급 지급 규모가 확대
 - '26년 1분기 IT 제조업(300인 이상) 근로자당 월평균 상용특별급여는 1,259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7% 증가하였으며, 300인 이상 제조업(576만원, +38%) 및 제조업 평균(148만원, +26%) 증가율을 크게 상회
- 다만, 실적 호조에 따른 성과급이 실제 민간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거나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
 - 성과급은 전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데다, 자사주·이연 지급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, 실제 소비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
 - 또한, 성과급이 소비재 지출보다는 저축·부동산 등 자산으로 전환될 경우 소비 진작효과가 추가로 약화될 가능성
 - 수혜대상도 평균소비성향^[10]이 낮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^[11] 실제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

| 그림 9 | 제조업과 IT업종의 특별급여 총액 추이



주: 각 연도 1~3월 누적액
자료: KOSIS

| 그림 10 |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



자료: KOSIS

- 최근 IT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지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주식보유 가계의 소비여력이 증가할 가능성
 - '26년 6월말 기준 코스피지수는 작년 연초 대비 3.4배, 올해 연초 대비 1.6배로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IT 업종의 주가지수는 각각 6.3배, 2.2배 상승하며 주식 보유 가계의 자산가치가 증가하면서 소비여력 확대에 기여
 - 또한 최근 주식 보유자 수가 확대되고, 활동 계좌수도 늘어나면서^[12] 자산효과가 미치는 범위도 넓어지고 있음

[10] 평균소비성향 = (소비지출/처분가능소득)×1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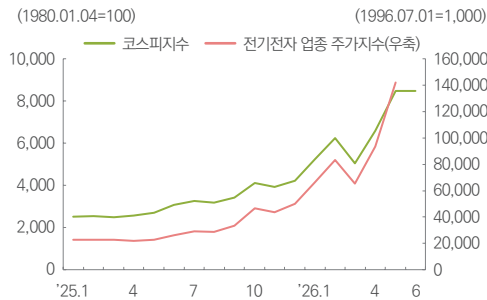
국가데이터처 '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기준 소득 1분위(하위 20%)의 평균소비성향은 155.3% 수준인 반면, 소득 5분위(상위 20%)는 57.7% 수준으로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이 저소득층 대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

[11] '26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300인 이상 IT 업종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1,927만원으로 제조업 평균(568만원)의 3.4배에 달하는 고임금 구간에 해당하며, 해당 종사자 수는 약 23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1.1%에 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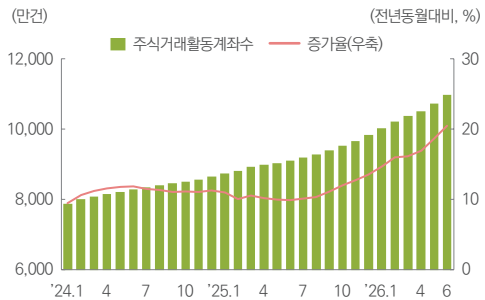
[12]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통계(2026.03)에 따르면 2025년 결산기준 주식소유자수는 1,442만명으로 전년대비 32만명 증가

- 주식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높은 변동성과 종목 양극화에 따른 수익 실현의 한계, 낮은 자산효과와 타 자산으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 등으로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
 - 주식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일부종목 쏠림 현상으로 인해, 지수 상승이 개인의 실제 투자 수익률 제고로 직결되지는 않을 수 있음
 - 또한, 주식의 자산효과는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, 차익 실현 금액이 소비보다 부동산 등 다른 자산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존재^[13]

| 그림 11 | 코스피 지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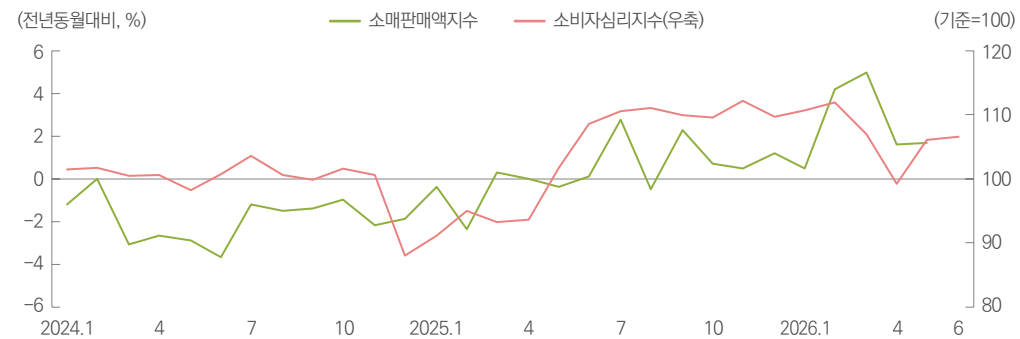


| 그림 12 | 주식거래활동계좌수



- 최근 소비 관련 지표는 4월 중동전쟁 충격에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
 - 소매판매액지수(전년동월대비)는 1~3월 0.5~5.0% 수준에서 4월 중동전쟁 영향으로 1.6%까지 둔화된 후 5월 1.7%로 소폭 회복
 -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 99.2까지 하락했다가 5월(106.1)·6월(106.6) 연속 반등하며 기준선(100) 대비 낙관적 수준을 회복^[14]

| 그림 13 | 소매판매액 및 소비자심리지수 추이



[13] 김민수 등, "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," 「BOK 이슈노트 제2026-10호」, 한국은행, 2026.05.07

[14] 소비자심리지수 개선의 주요 배경으로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와 주가 상승을 언급(한국은행 2026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기자간담회, '26.06.23)

04 결론 및 시사점

■ 최근 수출 호조는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과 사상 최대 성과급 지급이 맞물리며 내수 파급이 기대되나, IT 업종 집중·고소득층 편중·낮은 자산효과 등으로 경제 전반으로의 실질적 파급에는 시차와 한계가 존재

- 크게 늘어난 수출 금액과 빠른 성장세는 GDP 성장률을 직접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을 통해 경제 전반에 기여할 전망
- 특히, AI 수요 급증에 따른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과 기업의 실적개선으로 기록적인 성과급 지급 등이 맞물리면서 이번 수출 호조의 내수 파급효과가 지난 반도체슈퍼사이클('17~'18년)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예상
- 다만, 수출 성과 및 기업 실적 개선이 타 산업으로의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IT 업종에, 성과급 수혜 대상이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어 파급효과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거나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
- 또한 주식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높은 변동성과 종목 양극화에 따른 수익 실현의 한계, 낮은 자산효과와 타 자산으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 등으로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

■ 수출 호조의 파급효과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한편, 업종·계층 간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

- (국산화율 제고)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의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, R&D 지원, 산학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수출 성과가 여타 산업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제고할 필요
- (대·중소기업간 동반성장) 협력 중소기업과의 납품단가 현실화·기술협력 강화 등 대·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기업 간 파급 경로 확대
- (투자환경조성) AI·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발표된 대규모 설비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혜택, 인프라 공급 등 투자 장려 환경을 조성하여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필요
- (포용적 성장 기반 확충) 수출 호조의 성과가 IT·비IT 업종 간, 고소득·저소득 계층 간,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편중되는 양상인 만큼,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

nabO Economy Trends & Issues

경제동향 & 이슈

2026년 7월호 통권 제142호

발행일 2026년 7월 23일

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

편 집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

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
(02-2070-3114)

제 작 (주)디자인여백플러스 02-2672-1535



(07233)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
Tel. 02-2070-3114 www.nabo.go.kr

발간등록번호	31-9700496-001572-06
ISSN	3058-9657

